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56837

2012년 2월

교육학석사(특수교육)학위논문

온라인 농인 커뮤니티 사례 연구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박 은 경

온라인 농인 커뮤니티 사례 연구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f Online Deaf Community

-Focused on 'Korean Association of Deaf University Students'-

2012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박 은 경

온라인 농인 커뮤니티 사례 연구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허 유 성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특수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박 은 경

박은경의 교육학 석사(특수교육)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정은희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승희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허유성 (인)

2011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표목차 ····· iii
그림목차 ····· v
ABSTRACT ····· vi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4
3. 용어의 정의 ····· 4

Ⅱ. 이론적 배경 ····· 6
1. 농문화 ····· 6
1)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본 농문화 ····· 6
2) 문화적인 관점에서 정의되는 농사회 ····· 9
2. 농문화 접근과 이해 ····· 11
3. 온라인 커뮤니티 개념 및 특성 ····· 12
1) 온라인 커뮤니티의 개념 ····· 12
2)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 ····· 15
3) 온라인 커뮤니티의 유형 ····· 17

Ⅲ. 연구 방법 ····· 20
1. 연구대상 ····· 20
2. 연구절차 ····· 21
1) 연구대상의 선정 ····· 21
2) 자료 수집 ····· 21
3) 자료 분석 ····· 21
(1) 분석 방법:내용분석 ····· 22
(2) 분석 방법:빈도분석 ····· 23

Ⅳ. 연구 결과 ····· 24
1. 커뮤니티의 개설 배경 및 발달 과정 ····· 24
1) 개설 배경 및 성격 ····· 24
2) 발달 과정 ····· 25
(1) 연도별 회원 증가 ····· 25
(2) 커뮤니티 구성 ····· 26
2. 커뮤니티의 내용 분석 ····· 29
1) [KADUS] 내용에 대한 개요 ····· 29
2) [KADUS] 메뉴별 내용 분석 ····· 32
(1) [KADUS 소개] 메뉴 분석 ····· 32
(2) [KADUS 공간] 메뉴 분석 ····· 40
(3) [KADUS 홍보] 메뉴 분석 ····· 53

Ⅴ. 논의 및 제언 ····· 56
1. 논의 ····· 56
2. 제언 ····· 61

참고문헌 ····· 63
부록 ····· 67

표 목 차

<표 Ⅱ-1> 관련연구자들이 정의한 온라인 커뮤니티 ····· 14
<표 Ⅲ-1> 연구대상 ····· 20
<표 Ⅳ-1> [자기소개] 게시판의 연도별 자료수 ····· 26
<표 Ⅳ-2> 한국농아대학생 연합회 웹 공간 구성 ····· 26
<표 Ⅳ-3> 농대연 연도별 자료수와 조회수 ····· 30
<표 Ⅳ-4> 농대연 하위메뉴별 자료수와 조회수 ····· 31
<표 Ⅳ-5> [KADUS 소개] 하위 메뉴별 자료수와 조회수 ····· 32
<표 Ⅳ-6>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 부서와 임원진의 구성 ····· 34
<표 Ⅳ-7> [내부자치위원회] 내용 분석 ····· 35
<표 Ⅳ-8> [연대기] 게시판의 자료 분석 ····· 36
<표 Ⅳ-9> [연대기] 게시판의 연도별 자료수 ····· 39
<표 Ⅳ-10> [KADUS 공간] 하위 메뉴별 자료수와 조회수 ····· 41
<표 Ⅳ-11> [공지사항] 게시판의 내용 분석 결과 ····· 43
<표 Ⅳ-12> [공지사항] 게시판의 연도별 자료수와 조회수 ····· 43
<표 Ⅳ-13> [자기소개] 게시판의 장애여부 ····· 44
<표 Ⅳ-14> 농(청각장애)학생의 전공 현황 ····· 45
<표 Ⅳ-15> 농대연 커뮤니티의 가입 경로 ····· 45
<표 Ⅳ-16> 연도별 [자유게시판]의 자료 분석 ····· 47
<표 Ⅳ-17> [익명토론실] 게시판의 내용분석 결과 ····· 49
<표 Ⅳ-18> 청각장애 분류를 주제로 한 자료 ····· 49
<표 Ⅳ-19> [대학정보] 게시판의 내용분석 결과 ····· 51
<표 Ⅳ-20> [지역모임] 게시판의 분류 ····· 52
<표 Ⅳ-21> [지역모임] 게시판의 지역 분류 ····· 52
<표 Ⅳ-22> 농대연의 [세미나/교육] ····· 53
<표 Ⅳ-23> [문화/봉사] 메뉴의 유형 분석 ····· 54

<표 Ⅳ-24> [알바/취업] 메뉴의 자료 분석 ····· 55
<표 Ⅳ-25> [정책/뉴스] 게시판의 내용 분류 ····· 55
<표 Ⅳ-26> [정책/뉴스] 게시판의 내용 분석 ····· 56
<표 Ⅳ-27> [공모전] 게시판의 내용 분석 ····· 57

그 림 목 차

[그림 Ⅳ-1] 농대연 연도별 회원증가 ····· 25
[그림 Ⅳ-2] 농대연 전체 자료수와 조회수 ····· 29
[그림 Ⅳ-3] [KADUS 소개] 메뉴 자료수와 조회수 ····· 33
[그림 Ⅳ-4] [KADUS 공간] 메뉴 자료수와 조회수 ····· 42
[그림 Ⅳ-5] [자유게시판] 메뉴의 자료수와 조회수 ····· 46

ABSTRACT

A Case Study of Online Deaf Community
-Focused on 'Korean Association of Deaf University Students'-

by Park Eun-Kyoung
Advisor : Prof. Yu-Sung Heo, Ph.D
Major in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is aimed to explore the on-line community culture of hearing impaired people by analyzing on-line hearing impaired university student community. The investigation was made by focusing on the internet community 'Korean Association of Deaf University Students (KADUS)' that has interests in the hearing disabled, who use internet more than any other disabled people, and in the community activity itself among internet community's several concentrating purposes. Through the analyzing process I would like to know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hearing impaired university students on-line community and clarify what is important characteristic of each constituting menu of the community.

Firstly, KADUS is a closed, warm and cafe-style community in its nature. The boundary of the group is clear. Members have strong sense of belonging to the community. It is a closed community where the relationship in real space is connected to cyber space. It can be defined as a warm community in which members seek their benefit and value not by pursuing individual benefit but by the general good.

Secondly, KADUS is the community that effectively connects on-line and off-line. The members, who are distributed nation-wide, meet not only on-line but also off-line to promote friendship and to form personal relationships. In

conclusion on-line community arouses off-line meetings, and off-line meetings vitalize on-line activities and then they go through virtuous cycles that make them experience strong sense of belonging.

Thirdly, KADUS has a strong nature of having clear purpose. KADUS has clear purpose of the community as 'to protect the right of the hearing impaired university students, to promote friendship between areas and universities and to exchange informations'. It provides hearing impaired students with informations about campus lives and the right of education that are necessary to the hearing impaired students. And it provides off-line events for the promotion of fellowship among members and information exchange.

Fourthly, members of KADUS expand and refine the informations about hearing impairment through community discussion, and they actively use it to make their identity more clear in domestic situation.

Fifthly, as KADUS is a space where university students are centered, members exchange their experiences and informations about their university affairs.

Sixthly, collecting extensive opinions and discussions are made at 'Free notice board' and 'Anonymity discussion room' in the on-line community. Through them members harmonize their ideas with other people's and they develop their opinions by commenting to other people's opinions as well.

I aimed to understand even a small area of hearing impaired university students' current lives through above characteristic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컴퓨터를 매개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티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커뮤니티는 기술적인 면에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기업이지만, 형성과 운영은 이용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포털 사이트에 가입하면, 누구나 원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커뮤니티를 개설할 수 있고,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공통적인 웹 메뉴를 기본 바탕으로 개설자는 각자의 취향에 따라 메뉴와 디자인 등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와 같은 형태의 커뮤니티는 일반 개인 홈페이지나 웹 사이트와는 기술적인 면에서 다음과 같은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Farrior etal, 1999). 첫째, 커뮤니티의 기본 메뉴와 디자인이 공통적으로 제공되므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던 컴퓨터 활용 능력은 더 이상 개설 자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디자인이나 기술보다는 커뮤니티의 주제와 콘텐츠가 커뮤니티 속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둘째, 커뮤니티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입력하는 커뮤니티의 주제는 곧바로 해당 포털 사이트의 검색 엔진에 등록이 되어, 개설이 승인됨과 동시에 쉽게 검색할 수 있고, 방문과 가입이 용이하므로 회원이 매우 빠르게 확보된다. 또한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공통된 스타일의 사이트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신규 가입한 커뮤니티에도 쉽게 적응하고 익숙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새로운 의제가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기술적인 준비 작업 없이 신속하게 커뮤니티를 개설할 수 있게 하고, 검색 경로를 활용하여 수많은 이용자에게 홍보하는 것도 가능하게 한다. 커뮤니티는 소속감을 지닌 멤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커뮤니티를 유지·발전시키는 주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설립 취지나 운영원칙이

존재하고 상호작용성을 전제로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더 나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사교성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Farrior etal, 1999).

기존 오프라인에서 커뮤니티(community)는 '함께(cum) 의무나 책임(munus)을 다 하는', 또는 '함께(cum) 하나(unus)가 되는' 이라는 의미가 결합된 라틴어 어원, communis(또는 communitas)에서 유래한다. 그래서 커뮤니티는 '상호 간의 의무에 기반을 둔 개인들의 모임, 혹은 하나의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기 위한 개인들의 모임'으로 정의된다(김상욱, 2004; Rothaermel & Sugiyama, 2001). 가상공간에의 활용이 급증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동호회, 클럽, 카페' 등으로 불리는 온라인 '커뮤니티(community)'와 관련된 것들이다. 최근에는 커뮤니티와 소위 인터넷상에서 친구·선후배·동료 등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인맥(친분 및 대인관계)을 강화시키고 또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맥을 쌓으며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칭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와 연계하여 그 내용과 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종류에는 싸이월드, 네이버 및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카페, 트위터, 페이스 북이 해당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0)의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으로 장애인 거주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은 71.6%로 전년 대비 0.4%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인 81.8%보다는 10.2% 낮은 수준이지만, 장애인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은 2008년 70.7%, 2009년 71.2%, 2010년 71.6%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0년 말 기준,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만7세~69세)의 인터넷 이용률은 53.5%로, 전년 대비 0.8% 증가하였으나 전체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인 78.3%보다 24.8%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국민과의 인터넷 이용률 격차는 감소 추세이다. 전년 대비 장애인과 전체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 격차는 24.9%에서 24.8%로 0.1% 감소하였다. 장애인 계층 내 성·연령·학력·장애유형·장애등급별 세부 집단의 인터넷 이용률을 살펴보았을 때, 여성보다 남성, 타 장애유형 대비 지체장애, 저연령일수록, 고학력일수록, 고

소득일수록, 장애등급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인터넷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 시 주 애로사항으로 '장애로 인한 이용 어려움'을 장애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시각장애집단이 19.9%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뇌병변 장애집단(13.5.%), 청각/언어 장애집단(11.2%), 지체 장애집단(7.8%)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각장애인 집단이 다른 장애에 비해 인터넷 사용에 덜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 장애인을 기준으로 인터넷을 통한 사회참여 관련 활동별 비율을 살펴보면(인터넷 이용자+비이용자), '관련 카페나 커뮤니티 활동'은 10.0%(일반국민 19.1%), '관련 뉴스기사에 댓글 달기'는 9.4%(일반국민 25.0%), '관련 인터넷 여론조사 참여'는 6.3%(일반국민 12.1%)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인터넷 심화 용도별 이용률을 살펴보면, 일반국민은 '관련 뉴스 기사에 댓글 달기'의 비중이 높은 반면에 장애인의 경우 '관련 카페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인터넷 활동이 크게 늘어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한 연구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청각장애 대학생 중심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한 특성, 내용에 관한 체계적인 실태 파악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탐색연구는 기존의 청각장애인들의 오프라인 문화와는 다른 형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른 장애에 비해 인터넷 이용률이 높은 청각장애 대학생들이 주로 참여하는 인터넷 심화용도 중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인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중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Korean Association of Deaf University Students; KADUS)'를 중심으로, 왜 온라인 커뮤니티가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탐색적인 수준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온라인 농인 커뮤니티의 특성요인을 도출하고, 커뮤니티의 구성 메뉴별로 중요한 특성이 무엇인가를 밝히려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함께 농문화를 연결하여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긍정적 개념과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농대학생 커뮤니티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청각장애인의 온라인 공동체 문화를 탐색하는 것이다. 즉, 온라인 커뮤니티 속에 드러나는 농대학생들의 일상적인 삶의 부분(예를 들어, 농대학생들의 관심 주제, 대학생활에서 어려운 점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농인 커뮤니티의 개설 배경 및 성격은 어떠한가?
둘째, 온라인 농인 커뮤니티의 발달 과정이 가진 특징은 무엇인가?
셋째, 온라인 농인 커뮤니티의 메뉴별로 게시되는 글의 유형과 내용은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1)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란 인터넷 기반의 가상 커뮤니티로서, 인터넷의 기술 기반 위에서 공통적 경험과 관심사,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적 모임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상호작용은 비동시적이며 다차원적으로 나타나며, 커뮤니티 내에서 상호작용은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구성원 상호간에 명시적인 표현으로 자발적으로 발생한다(서이종, 2002).

2) KADUS(Korean Association of Deaf University Students)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는 전국의 모든 농(청각장애) 대학생 및 관심 있는 대학생의 공식모임이다. 2008년 1월 20일 싸이월드에 온라인 농인 커뮤니티를 개설하였

고, 2011년 6월 기준 회원수는 600여명 정도이다. 2008년 1월 20일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발달하고 있는 대표적인 농(청각장애)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이다. 웹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club.cyworld.com/KADUS

II. 이론적 배경

인터넷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한 연구가 활성되고 있지만 농(청각장애)학생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한 이론과 체계적인 현황 파악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문화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한 개념적 접근과 일반 웹 사이트나 개인 홈페이지와는 구별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속성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속성과 농문화를 연결하여 커뮤니티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농문화

하나의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문화만의 조직이 필요하다.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사회기술을 발달시키고 서로 모방하는 가운데 집단응집력이 강해지는데, 이는 조직이 있음으로 가능하다.

농인들은 그들만의 집단응집력과 동료의식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 국가,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조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농문화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그들만의 공간으로 잘 유지, 전승되는 특징을 보인다(권순황, 2001; 최성규, 1997). 농인들은 청각 대신 시각에 기초하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농문화'라고 한다(Padden, 1980). 농인의 경우 농인만의 세계인 농공동체에서의 농문화를 가지고 있다. 농문화의 기준은 그 사람이 다른 농인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농인처럼 행동하는지 여부에서 찾는다. 농인은 농문화권 내에서는 강한 응집력을 보이면서 그 속에서 개인의 자아개념, 정체성 등을 확립하며 성장한다(이정민 등, 2002).

문화다원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농문화도 하나의 문화로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청각장애의 수화가 언어로 인정받아 가는 과정에서 농사회를 언어적 소수자, 문화적 집단으로 간주하는 시점이 나타났다. 농인들도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

에 대한 정신과 긍지를 되찾고 자신들이 장애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언어적 소수자로서 인정해주도록 사회에 요청하기 시작했다. 농사회란 들리지 않는다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언어(수화)와 문화(deaf culture)를 공유하는 것에 의해 성립된 사회이다.

따라서 농사회는 민족이나 지리적 측면이 아닌 사회 문화적, 언어적 기준에 의해 정의된다. 농사회가 문화에 대한 이러한 움직임은 들을 수 없는 장애인이라는 병리적 시점에서 언어적 소수자라는 사회적·문화적 시점으로의 전환이며, 이러한 시점의 전환은 농인이 사용하는 수화가 음성언어와 비교해서 손색이 없는 완전한 언어란 인식하에 처음으로 가능해진 것이다(배성규, 2007).

농인에게 청인 세계의 언어와 방법을 강요하는 것은 청인이 대부분인 주류사회가 소수인 농인들에 대한 억압적이고 우월하다는 의식이 기저에 깔려져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런 가치 판단은 농문화에 큰 상처를 주는 잠재 요소이다. 농인은 종종 청인 세계에 존재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농문화는 그들이 농세계라고 부르는 매우 완전하고 청인문화와는 독립된 문화이다. 농문화는 다른 민족적, 종교적 단체와는 다른 독립적 문화이다.

청인은 농인과는 달리 청각적 정보와 시각적 정보를 함께 활용함으로 시각적 정보에만 의존하는 농인에 비해 무표정하고 무감각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농문화는 단순히 청각손실로 분류되는 문화가 아니라 다양한 요인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농문화는 하위문화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로 다수의 연구자들은 정의한다(Choi, 1995; Padden & Humphries, 1998).

1)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본 농문화

Stewart와 Kluwin(2001)은 문화의 4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그 첫 번째는 역사이다. 역사란 전통적인 사고, 가치, 신념의 전달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행위이다. 제 1언어로써 수화를 사용하거나 농공동체에 참여하는 농인은 농공동체의 독특한 문화적 행위를 한다. 세 번째는 기능이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말

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어떤 단체는 그들만의 한 가지 해결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상징이다. 이는 농인의 특성이 되어왔던 자기 결정력의 원동력이라고 하였는데, 바로 사건이나 사물에 대한 의미나 가치를 정하는 것이다. 농문화는 농인들에게만 전해지는 사고, 가치, 신념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만의 언어인 수화를 사용하고 그들만의 문화적인 행위를 가지며 그들만의 문제 해결방식이 있으며 그들만의 상징을 가지고 있다.

농문화를 정의하기 위한 문화의 4가지 요소를 찾아보자면 그 첫 번째가 언어이다. 농문화 구성원들은 그들의 언어인 자연수화를 통하여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된다고 보았다. 두 번째는 집단 정체감이다. 집단 정체감은 사회적, 문화적, 언어적 요소에 기반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농문화를 향유하는 농인들 간의 족내혼을 들 수 있다. 농인의 85%내지 90%가 농인끼리 결혼을 한다. 이러한 족내혼은 민족이나 문화 집단의 생존의 핵심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네 번째는 지역, 국가, 국제적인 모든 수준에서의 집단 응집력과 동료 의식을 유지하는 조직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권순황, 2001).

Skinner(1990)는 문화를 서로 다른 사회적 환경에서 언어 행동, 교수학습, 인간의 의식 주 등이 상호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인간의 계통발생학적인 특성과 개체발생학적인 특성을 고려해보면 Skinner(1990)의 정의로 파악할 수 있는 문화는 매우 다양하다 할 수 있다. 사람마다 타고난 생득적 특성과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환경적인 특성들이 제작기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문화를 전승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에 대해서는 문화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들 모두가 해당된다.

다시금 정리하자면 첫째, 문화의 세습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언어이다. 언어는 대부분의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언어는 문화적·민족적 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언어가 없는 민족은 사라진다. 언어를 지닌 민족은 삶의 터전이 없더라도 유지된다. 그래서 농인의 수화는 농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 사회나 개인의 가치, 신념, 사상 등을 소통하는 중용한 매체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농사회, 농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향유한다는 것은 농학생이 그들의 언어인 수화를 필수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동의함과 다름이 아니다. 농학

생은 수화를 통해 농문화를 들여다보고 농문화를 배우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함으로 문화적 정체감을 가지는 것이다(권순황, 2001).

농문화와 청인문화의 유사성과 상이함은 하나의 사회에서 공존하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나, 청인 문화의 기준에 따라 상이성이 나타난다. 또한 농문화의 기준에 따라 청인문화는 상이성이 나타난다. 가장 큰 유사성은 농인과 청인이 동일한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이고, 언어적 경험과 청각의 경험이 상이성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농인들은 한국 수화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들의 문화를 농학교와 농아인 협회와 같은 농공동체를 통하여 세습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집단 응집력을 나타내고 있다. 즉 농문화는 하나의 문화로써 다른 문화와 같이 전통적인 가치, 사고, 신념을 전수하고 농인만의 독특한 행위를 하고 있다. 이 독특성은 공유된 경험과 공유한 언어가 만든 것이다.

2) 문화적 관점에서 정의되는 농사회

과거의 병리학적 관점에서의 농인사회는 정상적인 구어 수용을 방해하는 청력 손상을 지닌 사람들의 단체, 청력의 손실과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습과 심리학적 문제를 지닌 사람들의 단체,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이 아닌 사람들의 단체로 정의하였다.

최근의 문화적 관점에서의 농인사회는 집단 응집력과 정체감 형성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의사소통 수단인 수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단체, 공동의 언어인 수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단체, 공동의 언어인 수화와 공통의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단체, 시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시각적으로 수용되고 움직임으로 만들어지는 언어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단체로 정의한다(배성규, 2007).

미국에서 농인이 사용하는 수화가 언어로서 인식되어 가는 과정에서 농인사회(deaf community)를 언어적 소수파이자 문화적 집단으로 인식하려는 관점이 생겨났다. 농인사회는 청력의 손실에 의한 것이 아닌 언어(수화)와 문화(deaf culture, 농문화)를 공유함으로 인해 형성되는 사회이다. 청각장애인으로 지칭되는 사람 모

두가 수화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농인 사회의 구성원을 구별하는 용어가 필요하게 되었다. 결국 들리지 않는 사람인 뜻의 'deaf'에서 그 첫 글자를 대문자로 사용하여 농인사회의 구성원을 나타내는 단어로써 사용하게 되어 이 후 'Deaf'는 농인 사회를 지칭하는 뜻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요나이야마, 2002).

이준우(2003)는 농인사회와 함께 생활하거나 밀접한 관계를 갖고 동질성을 획득한 사람을 누구나 농인사회의 일원으로 보고 있다. 요나이야마(2002)도 농인사회를 언어(수화)와 문화(농문화)를 공유함으로 형성되는 사회로 정의하였고, 이 집단은 언어(수화)와 문화(농문화)를 전승한다고 하였다. 농인사회는 청인 가족을 가진 많은 농인들에게 쉽게 제 2가족이 된다. 이런 제 2가족은 혈연의 가족보다 더 강할 수도 있는 어떤 응집력이 있다.

많은 소수 그룹과 마찬가지로 농인사회는 자신의 문화가 우세하다고 여기는 믿음과 고정관념을 가지기도 한다. 이런 믿음 중에는 농은 문제가 아니며 전해져야 한다는 믿음도 있다. 종종 농 연구에서 청인은 융통성 없고 비감정적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구어는 말로 전달되지만 수화는 얼굴 표정과 신체 움직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청인은 농인과는 달리 청각적 정보에 시각적 정보를 함께 활용함으로 인해 시각적 정보에만 의존하는 농인에 비해 무표정하고 무감각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농인은 농문화가 청인 문화보다 우세하다고 여기는 이런 믿음은 농인사회를 더욱 단단히 응집력이 있다고 본다.

농인사회는 우정과 상호작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매우 단단한 조직이다. 그곳에서 농교회, 농학교, 사업, 수화, 공통된 신념 등이 있다. 농학교는 농인사회의 중심 역할을 한다. 농학교는 단체 뿐 아니라 개인의 행복에도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특히 기숙제 학교는 농문화 구성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세계이다. 이곳은 농문화의 거점이 되고 농문화를 전달하고, 수화를 생성한다. 즉 이곳은 농문화를 전달하고 확장되는 곳이 된다.

또한 농문화는 농학생들에 대한 긍정적 개념과 가치를 높이고 정당화하여 농인들의 생존 능력을 배양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정진영, 2002). 건전한 농문화를 가지게 되면 농정체성도 긍정적으로 된다. 농정체성의 발달은 농인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개인적으로는 농정체성이 발달할수록 사회적으로 보다 수용적인 행동을 하고 변화를 추구함으로 궁극적으로는 사회적응력이 높아지므로 사회통합이 용이해지는 것이다. 또한 농 정체성이 발달할수록 자아개념이 긍정적이 되고 자아존중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Bat-Chava, 2000; Fisher, 2000; Glickman, 1993). 농 정체성은 가족이나 사회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어 긍정적인 농정체성을 가지면 청인 가족과도 잘 지내게 되고 결국 사회에도 잘 적응된다.

2. 농문화의 접근과 이해

농문화는 단순히 청각 손실의 정도로 구분할 수 없기에 다양한 요인을 살펴보며 이해할 필요가 있다. 권순황(2001)은 '농문화는 학교 체제, 부모의 언어에 대한 철학, 가족 체제 등과 같은 복합적인 다양한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그러므로 농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위문화라기보다는 그 자체를 하나의 문화로 정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농문화는 두 가지 점에서 다른 문화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데, 그 하나는 농문화가 역사를 전승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농문화가 농지역 사회의 특수한 환경 속에서 전수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분석하였다.

농문화를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여야 함에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청각장애인과 건청인과의 대화 단절로 인하여 서로 간의 이해의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단절은 청각장애인의 농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다. 어떠한 문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문화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사고하고 활동하는 결과인 동시에 이들을 제약하는 조건들로 이해할 수 있으며, 문화는 의미체계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이들은 본능과 같은 선천적 요인 이외에 학습이라는 교육을 통해서 학습·전승·형성돼 감으로 문화는 가정에서 비롯하여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 종교기관, 사회단체 등에 의해 학습될 수 있다(한상원, 1994).

그러나 대다수의 청각장애인들을 청력의 손실이라는 기준으로 이해한다면 그들의 문화인 농문화가 자칫 종속된 문화로 받아들이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그러나

농문화는 건청인 문화의 종속문화가 될 수 없으며 하부문화도 분명 아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 문화권에서는 민족의 시각에서 농문화를 이해하고 인정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오랜 역사 동안 단일 문화를 유지해오면서 타문화에 대한 배타적 성격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각장애인의 농문화를 하나의 집단의 문화로 인정하며 이해하고 같은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3. 온라인 커뮤니티 개념 및 특성

1) 온라인 커뮤니티의 개념

온라인 커뮤니티가 온라인 공동체나 가상공동체, 가상커뮤니티, 전자공동체, 웹공동체 등과 혼용되고 있는 것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일관된 개념 정의가 용이하지 않음을 보여준다(도준호 외, 2000).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통상적인 개념 설정이 어려운 것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온라인(가상성)'에 초점을 두어 접근하는 경우(주로 심리적 접근)와 '공동체성'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주로 사회학적 접근)이 상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이재관, 2002).

공동체성에 초점을 둔 온라인 커뮤니티 논의의 대부분은 먼저 공동체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를 설정하고, 이 요소가 온라인 공간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주된 관심을 둔다. 94개의 공동체에 관한 정의를 검토한 Hilery(1955)는 전통적인 공동체의 기본요소를 지리적 공간과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공통의 연대를 꼽았고 이들 요소들 가운데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었다.

가상공동체가 하나의 완전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 사람들은 물리적 공동체의 지역이 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로, 사회적 상호작용이 네트워크 상의 상호작용으로, 공동의 연대가 공통의 취미나 관심사로 대체될 수 있다고 본다(이재현, 2000; 박기우, 최순화, 이상민, 2000; 라도삼, 1997). 이렇게 봤을 때 가상공동체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전제로 만든 사회적 공간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나일주 등 2003). 비록 제스처, 표정, 시선 교차와 같은 비언어적인 신호를 주고받을 수는 없지만, 온라인 환경에서도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고, 그 안에서 상호작용 하는 사람들 사이에 공동체 의식이 형성될 수 있음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져 왔다(박준식, 2001).

존스(Jones, 1997)는 사이버 커뮤니티를 공간의 개념과 구분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즉, 사이버 커뮤니티란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형성된 공간에 모인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집단으로,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사이버 공간(cyber space)이 공동체의 공간인 거주지(cyber settlement)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상호작용, 다양한 커뮤니케이터, 공동의 공간 안에 상호작용하는 집단들, 그리고 구성원의 지속성의 조건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콘텐츠와 커뮤니케이션의 통합이 컴퓨터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 공간을 사이버 커뮤니티라고 간주하였다. 즉 컴퓨터에 의해 매개되는 공간은 콘텐츠와 커뮤니케이션이 통합된 곳으로 특히 구성원들에 의한 자생적 콘텐츠가 강조되는 개념이다(Hagel & Armstron, 1997).

이건(2001)은 인터넷 커뮤니티가 구성원들에게 표현과 해석 및 의사소통의 수단을 제공하는 상징물의 저장소이며, 이렇게 공유한 상징에 대해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저마다 다양한 의미와 해석을 허용하는 소통의 영역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사이버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은 상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의 영역에 참여하여 자신의 소속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되며, 이러한 소속감의 개념은 사이버 커뮤니티의 경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계성의 개념을 기준으로 사이버 커뮤니티를 닫힌 공동체와 열린 공동체로 구분하였다. 현실 공동체에서는 물리적 경계가 존재하므로 대부분이 동일하게 경계에 대해 인식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물리적 경계 대신 공동체의 경험을 통해 그들만의 영역을 가지게 되고 영역의 공유를 통해 공동체의 경계를 상징적으로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상징화된 공동체의 경계는 구성원들의 합의와 인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빔버(Bimber, 1998)는 이러한 경계에 의해 형성되는 공동체성을 서열적인 개념으

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즉, 어떤 공동체가 구성원들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이익의 차원을 넘어서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것에 따라 개개인의 이익과 가치를 규정할 때 그러한 공동체를 두터운 공동체(thick community)로 볼 수 있고, 반면 토론·저항·시장거래·투표 등에서 개별적인 관심사나 이해 관계 등의 유사성·공통성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는 얇은 공동체(thin community)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서열적 수준에서의 개념 정리는 논리적으로 다양한 수준의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통상적인 개념 설정이 어려운 것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온라인(가상성)'에 초점을 두어 접근하는 경우(주로 심리적 접근)와 '공동체성'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주로 사회학적 접근)이 상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이재근, 2002).

한편 인터넷 사이트의 공간 구성은 크게 세 가지 즉 정보 공간, 사교 공간, 연수공간으로 이루어진다(킴, 2001; 신은화, 2006). 정보 공간은 운영자가 제공하는 정보 영역으로 운영자의 입장에서 많은 회원을 끌어 모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관심사의 주제들을 모아 놓은 영역이다. 사교 공간은 회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관계 형성을 돕는 영역으로 소모임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연수공간은 회원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지식이나 기능을 익히기 위해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으로 학습할 수 있는 영역이다.

<표 II-1> 관련 연구자들이 정의한 온라인 커뮤니티

연구자	온라인 커뮤니티 정의
Stone(1990)	기술적인 매개를 통한 기존의 커뮤니티의 개념으로 연결한 가상 커뮤니티
Rheingold(1993)	충분한 수의 사람들이 인간적 감정을 가지고 사이버 스페이스 상에서 인간관계의 망을 형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공적 토론(public discussion)을 수행할 때 넷 상에 출현하는 사회적 모임(social aggregation)
Fernback & Thompson(1995)	관심 있는 주제로 정해지는 경계나 공간 속에서 반복적인 접촉(repeated contacts)을 바탕으로 가상공간에서 발달되어진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

Hagel III & Armstrong(1997)	구성원들에 의한 자생적 콘텐츠(member-genertated contents)에 중점을 두고 커뮤니케이션과 콘텐츠의 통합이 존재하는 컴퓨터를 매개로 하여 구축된 공간(computer mediated space)
Carroll, J.M(1998)	그들의 공유된 본질과 목적을 네트워크를 통한 의사소통과 협동으로 달성하고 강화하는 사람들의 집단
Stolterman etal. (1998)	특별한 기술의 사용으로 서로 관계있는 다수의 사람들
Joseph P. Cothrel(1999)	서로 돕고자 하며, 또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의 그룹
Jones(2000)	그룹 CMC(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를 지원하는 컴퓨터 매개 공간을 통하여 모인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집단
서이종(2002)	인터넷 기반의 가상 커뮤니티로서, 인터넷의 기술 기반 위에서 공통적 경험과 관심사,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적 모임

출처: 최순화, 이상민, 박기우(2000). 디지털 심포지엄: 사이버 커뮤니티 가치 평가. 이수현(2001). 지식 기여자의 지식기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재정리

2)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을 살펴보기 전, 온라인 커뮤니티와 전통적 공동체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서문식 외(2002)는 사이버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전통적인 공동체와 인터넷 커뮤니티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비교 정리 하였다.

첫째, 참여 동기의 측면에서 사이버 커뮤니티는 개인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형성되고 조직화된다. 이에 반해 전통적인 공동체는 역할과 지위에 따라 가입해야 할 또는 가입되어 있는 커뮤니티가 많다. 즉 자발적인 커뮤니티와 비자발적인 커뮤니티가 모두 가능하다. 여기에는 지역 커뮤니티, 동문 커뮤니티, 동창회, 학연 커뮤니티가 대부분이지만, 자신의 관심이나 취미에 의해 가입하는 커뮤니티의

경우는 예외이다. 둘째, 가입과 탈퇴의 측면에서 사이버 커뮤니티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 즉 마우스 클릭에 따라 가입과 탈퇴가 형성되는 반면, 전통적인 공동체의 경우에는 가입과 탈퇴가 다소 까다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사이버 커뮤니티는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능력과 적극성의 정도에 따라 다른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는 반면 전통적인 공동체는 대부분 동등한 역할과 대우를 받는다. 넷째, 사이버 커뮤니티의 참여 동기가 정보교환이나 친밀한 관계 유지의 이유로 나뉘지만 전통적인 공동체는 정보 교환의 특성보다는 친밀한 관계 유지로서 정서적인 유대의 목적이 더 강하다. 다섯째, 사이버 커뮤니티는 구성원들 간의 다양한 목적과 이해관계에 의해 형성된다. 전통적인 공동체 구성원의 구성이 상당히 동질적인데 반해 사이버 커뮤니티의 구성원은 이질적이다. 정서적 유대보다는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실제적 이익에 더 치중한다. 여섯째, 사이버 커뮤니티는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민주적이고 수평적이다. 사이버 커뮤니티 구성원들 간에 강요나 복종은 존재하지 않으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득을 바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일곱째, 전통적인 공동체가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형성되는 반면 사이버 커뮤니티는 컴퓨터를 매개로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의 만남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커뮤니티 구성원들 간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진다. 여덟째, 익명성이라는 사이버 커뮤니티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이버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은 구성원들의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난다.

한편 서이종(2002)은 Hillery(1955)와 Poplin(1972)의 연구에서 추출된 공동체 요인과 비교하면서 현실공동체와 사이버 커뮤니티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차이점으로는 첫째, 현실공동체는 시공간적인 구속성이 높은 반면에 사이버 커뮤니티는 시간과 공간의 구속성으로부터 벗어나 자발적이고 임의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현실공동체에서 인간관계는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반면에 사이버 커뮤니티에서의 인간관계는 간접적이며 부분적이고 심지어는 익명적이라는 점이다. 셋째, 현실공동체는 규제나 강제가 매우 강한데 비해 사이버 커뮤니티에서는 공동체적 강제가 비교적 약한 편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반면 유사한 점으로는 첫째, 구성원들 간의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고 가치나 규범을 공유하며, 완전한 상호신뢰는 아니지만 정보공개에 기초한 상호신뢰 및 연대성에 기초한다. 둘째, 비회원에게 항상 열려있지만 경계가 분명하며 인적 지속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셋째,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경험과 추억이 자료로 축적되고 동시에 그러한 관계자들이 그 공동체 속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통성을 지닌다.

3) 온라인 커뮤니티의 유형

다양한 사이버 커뮤니티를 범주화하는 첫 번째 기준으로는 경계성의 정도에 따라서 열린 공동체와 닫힌 공동체로 구분이 가능하다(성동규, 2002). 경계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회원의 조건이나 가입절차 등을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1) 열린 공동체(open community)는 공개 동호회, 게시판 등 약한 연줄의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일시적인 공동체적 느낌, 느슨한 권력 관계, 자유롭고 수평적인 관계를 특징으로 한다. 이에 반해 (2) 닫힌 공동체(closed community)는 학급커뮤니티와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집단의 경계가 명확하고 구성원간에 강한 소속감이나 현실공간에서의 관계가 사이버 공간으로 연계되는 현상이 드러난다.

두 번째 기준으로는 구성원간의 공동체적 특성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두터운 공동체'와 '얇은 공동체'로의 구분이 가능하다(장용호, 2002). (1) 두터운 공동체(think community)의 경우는 각 구성원이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공공선(public good)을 추구하는 과정을 우선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과 가치를 규정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2) 얇은 공동체(thin community)는 개별적인 관심사나 이해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공동체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기준으로는 커뮤니티 운영자의 역할, 회원 간의 상호관계 등을 기준으로 커뮤니티 내에 상호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상호성을 제시할 수 있다(서이종, 2002). 그 대표적인 유형은 커뮤니티 운영자가 주도하는 교회형 커뮤니티, 운영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 시현하고 관람하는 행위가 주된 극장형 커뮤니티, 회원들 모두가 임의적인 여러 상대회원들과 상호관계를 가지는 카페형 커뮤니

티가 있다. (1) 교회형 커뮤니티는 공통의 관심사와 가치에 기초하여 구성된 커뮤니티로서 커뮤니티의 운영자들이 신부나 목사와 같은 사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회원들을 인도한다. 이러한 교회형 상호성을 가지는 커뮤니티는 공통된 관심사나 가치에 대한 높은 지식수준과 더불어 솔선수범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때문에 회원들은 전문지식과 열정을 기초로 지도자형의 운영자, 열성적인 회원 그리고 일반회원으로 나뉜다. (2) 극장형(클럽형) 커뮤니티는 공통의 관심사나 취미를 기반으로 구성된 커뮤니티로 관심사나 취미를 시현하고 관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교환이 중요한 교회형 커뮤니티와 달리 극장형 커뮤니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시현이나 관람, 공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커뮤니티도 교회형처럼 관련 관심사에 대한 높은 지식 수준을 가진 운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극장형 커뮤니티에서 운영자는 온라인 활동을 이끈다기보다는 오프라인 취미나 관람, 공연에 대해 잘 알고 이를 조직화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회원은 자주 참여하는 열성적인 회원과 그렇지 않은 일반회원이라는 두 계층으로 나뉜다. (3) 카페형 커뮤니티는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티로 회원들 사이의 수평적인 상호성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운영자는 상호성의 장을 마련하는 단순한 조직자이며 회원들 간에 관심있는 사람들끼리 다양한 소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네 번째 기준으로는 온라인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의 욕구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Amstrong & Hagel, 1996). 온라인 커뮤니티의 형성은 사회적 욕구에 해당하는 관심 욕구, 관계 욕구, 환상 욕구와 경제적 욕구인 거래 욕구 등 네 가지 유형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1) 거래 욕구에 의한 거래 커뮤니티는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 및 판매를 촉진하고 이들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커뮤니티로서 이른바 경제적 교환을 위한 마케팅 시스템의 개념과 일치한다. 거래 공동체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와 구입을 용이하게 하는 욕구를 지니며 정보의 교환이 주된 목적이 된다. 거래 중심의 커뮤니티에서는 커뮤니티 참여자들 간의 의사교환이 장려되고 그 결과로 커뮤니티의 다른 구성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특정한 거래를 하게 된다. (2) 관심 욕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떠한 활동, 취미, 개인적이거나 전문적인 관심에 관한 주제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넓은 주제부

터 스포츠, 취미, 여행, 음악 등과 같은 좁은 주제에 이른다. 공통 관심 공동체는 이러한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하는 참여자들이 모인 커뮤니티로서 개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거래공동체 보다 더욱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여행, 음악, 영화 등의 취미 중심의 커뮤니티가 여기에 해당된다. (3) 환상 욕구는 환상과 즐거움의 세계를 탐험하고자 하는 욕구로서 이를 충족하기 위한 환상 커뮤니티는 온라인 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새로운 환경, 인물, 이야기를 창출하는 커뮤니티이다. 환상 공동체는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환경이나 인물, 이야기 등을 창조하는 공동체로서 재미와 흥미를 추구하는 쾌락적 욕구에 기반하고 있다. 특히 게임 공동체가 대표적이며 이는 현실공간의 실제적인 신분관계없이 다른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4) 관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들은 관계 커뮤니티에서 종종 매우 열정적이고 깊은 인적 연결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떤 생활 경험의 중심으로 모이려는 욕구를 총족시킨다. 관계 공동체는 다른 사람과의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는 공동체로서 회원들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기도 한다. 관계 중심의 커뮤니티는 일반적으로 다른 참여자들의 실제 신분을 아는 경우가 많으며 온라인상의 만남이 오프라인 상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암 환자들의 모임이 여기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의 개설 취지와 목적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티 유형을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개설 취지와 목적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많은 활동 내용과 방식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크게 분류하면 오락/취미형, 교육훈련형, 친목도모형, 가치/이데올로기 공유형, 사회지향형 커뮤니티로 분류할 수 있다(이재관, 2002).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농인 커뮤니티의 특징과 메뉴에 올라온 글의 유형·내용을 밝히고자 사례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대상과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8년 1월 20일 개설된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KADUS)'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농(청각장애) 커뮤니티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이트 중 회원수 600여명,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KADUS)'를 선정하였다. 이 커뮤니티는 커뮤니티 전문 사이트 내에서 존재하며,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커뮤니티의 명칭 및 URL 주소는 다음과 같다.

<표 III-1> 연구대상

사이트 명칭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
개설일	2008년 1월 20일
총 회원수((2011년 6월 기준)	600여명
URL주소	http://club.cyworld.com/KADUS

2. 연구절차

1) 연구대상의 선정

다음과 같은 예비조사를 통해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연구 의도에 맞는 관찰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먼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다음, 네이버, 싸이월드 등) 카페 카테고리에 검색어 '농"과 '청각장애'로 검색을 하여 청각장애 커뮤니티들을 찾았다. 이들 중 상대적으로 이용자가 많으며 학생 위주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싸이월드의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KADUS)'를 최종 선정하였다. 이후 커뮤니티 운영자로부터 협조를 요청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관찰하였다.

2) 자료 수집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자료 수집은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KADUS)'의 웹 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참여 관찰을 위해 해당 커뮤니티에 직접 가입하여 약 3개월간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3번 이상 커뮤니티를 방문하였다. 전체적인 메뉴의 구성과 특징을 살피고, 농대학생들의 문화와 활동을 엿볼 수 있는 메뉴를 중심으로 회원들의 활동 및 커뮤니티의 중요한 협의 사항들을 관찰하였다. 각 메뉴에 남아있는 과거 자료들은 날짜, 글제목, 조회수 등으로 나누어 수집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소규모의 사회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연구로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관찰 및 내용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즉 온라인 청각장애 대학생 커뮤니티 문화를 관찰한 데로 기술하는 문화기술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문화기술학적 연구들은 두 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인간행동

에 대한 관찰과 그에 따른 설명이다(송인섭 외, 2008). 문화기술학적 연구의 목적은 특정 문화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 문화를 연구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의 기본 단위는 관찰이므로 본 연구자는 연구대상이 속한 상황 속에서 회원 가입을 통한 참여관찰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관찰만 하였으며, 별도로 글을 게시하거나 게시된 글에 대해 댓글과 같은 적극적인 반응은 하지 않았다.

커뮤니티의 분석기간은 2011년 06월 10일 ~ 2011년 8월 30일로 정하였으며, 연구목적에 따라 유목화하여 분석하고, 분석된 자료를 연구자의 목적에 맞게 해석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 커뮤니티의 개설 배경 그리고 메뉴의 특징 순서로 살펴보았다. 이후 중요 메뉴에 대한 내용분석과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사전에 분석틀(framework)을 설정할 수 없어 메뉴 내용을 제목을 중심으로 그대로 분석하였다. 단, 커뮤니티 메뉴 중 회원등급으로 열람할 수 없는 [역대임원진]과 [기타자료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 분석방법: 내용분석

내용분석이란 연구자가 범주를 설정하고 수집된 자료인 원본으로부터 범주에 따라 수를 세는 것(Silverman, 2001)으로 커뮤니티에 게재된 모든 자료(또는 게시글)를 수집한 후 분석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내용분석은 시간소요가 많아 전체 맥락을 무시할 경우 단순히 단어를 세는 수준으로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자동하여 분석하기 어려운 방법이기 때문에 추론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임의적일 수 있다. 내용분석은 단순한 질문지, 검사 등으로 얻기 어려운 연구 등에서 사용된다. 내용분석은 메시지의 특성을 주관적,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추리하는 연구방법으로 객관성과 체계성, 수량화가 중요시된다. 본 연구는 온라인 농인 커뮤니티의 전반적인 운영 특징과 내용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어 개별 게시글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했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조사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편견이 분석내용에 영향을 미쳐

서는 안 되며,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표집이나 유형을 나누는 방법을 설명해주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 메뉴와 게시판의 내용 분석하는 방법으로 적합한 분석방법이라 할 수 있다. 전체 메뉴와 게시판의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Microsoft Excel, 2007)에 코딩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코딩이란 수집된 데이터를 표준화된 형태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게시판의 내용을 주제와 내용별로 크게 구분하여 엑셀로 정리하였다. 각 자료들을 문장으로 정리하고 각 자료에 대하여 범주를 설정 후 입력하여 코딩을 완료하였다. 빈도분석을 위한 데이터 입력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특수교육전공자 2명이 전체 데이터의 10%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입력자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신뢰도는 9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불일치 내용은 토론을 거쳐 최종 항목을 결정하였다.

(2) 분석방법: 빈도분석

커뮤니티에 게재된 모든 자료수(또는 게시글 수)와 자료별 조회수를 월별, 게시판 별로 수집한 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Microsoft Excel, 2007)을 사용하여 순위를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참여와 상호작용이 얼마나 가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었다. 빈도분석을 위한 데이터 입력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특수교육전공자 2명이 전체 데이터의 10%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입력자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신뢰도는 9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불일치 내용은 토론을 거쳐 최종 항목을 결정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커뮤니티의 개설 배경 및 발달 과정

1) 개설 배경 및 성격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KADUS)(이하 농대연)’는 ‘Korean Association of Deaf University Students’의 약자로 전국의 모든 농(청각장애)대학생 및 관심 있는 대학생의 공식모임이다. 농대연은 2000년 9월 30일 출범하여 2008년 1월 20일 싸이월드에 온라인 농인 커뮤니티를 개설하였고, 2011년 6월 기준 회원수는 600여명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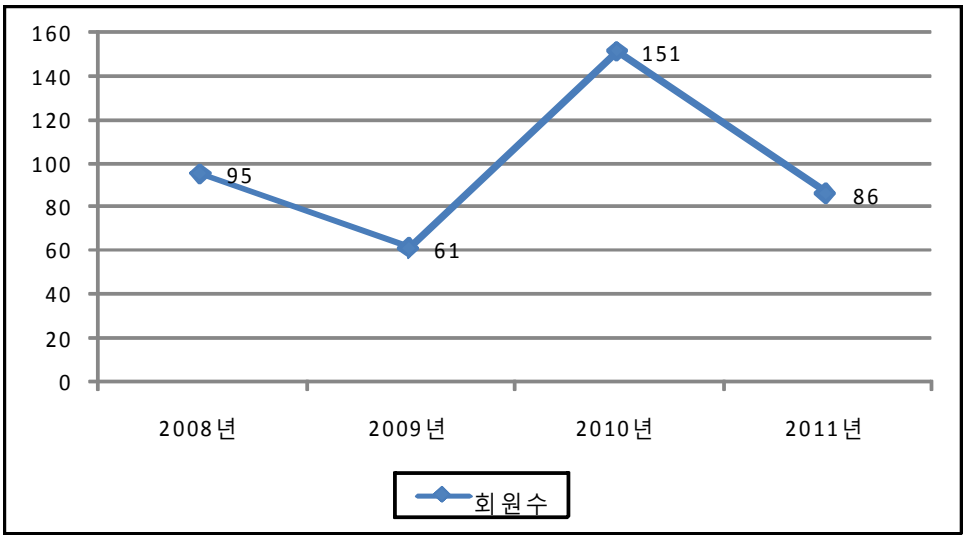
농대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대입을 준비하는 농학생들에게 올바른 대학생활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그들이 민주적 인격 함양을 지향하여 올바른 사회 주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며, 각 지역 및 대학모임 간의 친목도모와 정보교류를 하면서 건전한 인간관계를 지향하고 농(청각장애)대학생과 건청 대학생과의 상호간 이해를 함으로써 농(청각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자 노력하는 단체이다.

농대연은 회원 수의 꾸준한 증가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활발해 지면서 운영자에게 집중될 수 있는 역할들을 회원들에게 나누어 맡겨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매년마다 정기총회 때 회장단이 선출되며 전국적으로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거나 추천하고 있으며 농대연 회장이나 임원으로서 요구되는 능력은 제한이 없다. 또한 수화를 쓰지 않는 농(청각장애)학생 뿐 아니라 건청인들도 농대연의 임원이 될 수 있다. 2011년 6월 현재 12대 임원진이 활동 중이며 장애와 상관없이 농(청각장애)학생들의 권리를 높이고 농(청각장애)학생들과의 소통과 친목 그리고 통합이라는 공통분모를 찾아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 발달 과정

(1) 연도별 회원 증가

농대연은 2008년 1월 20일 개설 이후 연 평균 100여 명 정도의 신규 회원이 유입되고 있다. 커뮤니티 메뉴 중 [자기소개] 메뉴를 바탕으로 한 연도별 농대연 회원 수를 살펴보면 2010년 회원 수가 가장 많이 증가됨을 볼 수 있다.



[그림 IV-1] 농대연 연도별 회원 증가 (2011년 6월 기준)

[자기소개] 메뉴는 회원 가입 후 본인을 공개하는 게시판으로 신규회원들의 자기소개를 통해 보다 강한 친밀감을 형성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자기소개]는 사이버상에서 시공간적 거리감을 감소시키고 친밀함을 형성하여 회원들 간에 보다 활발한 상호작용을 유발하려는 의도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2011년 6월 현재 실제 가입자 수는 600여명인데 반해, [자기소개]에 글을 올린 신규회원 수는 393명에 지나지 않은 것을 보면, 가입 후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신규회원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농대연 회원들 중 [자기소개]에 글을 올린 회원들은 다른 회원들에 비해 농대연 활

동에 보다 적극적이며 소속감을 더 많이 갖고 있는 회원이었다. 자기소개를 하지 않는 회원들은 커뮤니티 활동에서도 자료를 열람하고 조용히 관찰하는 소극적인 회원들이 많다.

<표 IV-1> [자기소개] 게시판의 연도별 자료수

년도	08년1월20일 ~ 12월 31일	09년 1월 1일 ~ 12월 31일	10년 1월 1일 ~ 12월 31일	11년 1월 1일 ~ 6월 31일	합
자료수(건)	95	61	151	86	393
백분율(%)	24.2	15.5	38.4	21.9	100

(2) 커뮤니티의 구성

커뮤니티 메뉴별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선 커뮤니티의 구성을 살펴보았다. 농대연의 웹 공간 구성은 [KADUS 소개], [KADUS 공간], [KADUS 홍보], [KADUS 자료], [KADUS 추억], [역대임원진], [기타자료실] 총 7개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농대연의 주 메뉴들은 커뮤니티 개설 초기에 전체적인 틀이 만들어져 현재까지 크게 변하지 않고 추가 또는 수정되어 왔다.

<표 IV-2>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 웹 공간 구성

구분	상세 분류
KADUS 소개	KADUS?
	인사말
	조직도
	임원진
	내부자치회
	연대기
	회칙

KADUS 공간	공지사항
	자기소개
	자유게시판
	익명토론실
	대학정보
	지역모임
	방명록
KADUS 홍보	세미나/홍보
	문화/봉사
	알바/취업
	정책/뉴스
	공모전
	기타게시판
KADUS 자료	통역자료실
	수어자료실
	공개회의록
KADUS 추억	KADUS영상
	2011年
	2008年~2010年
역대임원진	역대임원게시판
	임원역대자료실
기타 자료실	회의안건/회의록
	임원운영자료실
	재단/활동보고서
	공문자료실
	임원방명록
	감사&자문

커뮤니티 이용은 회원의 등급에 따라 다르게 제공된다. 회원 등급은 정식회원, 일반회원, 명예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회원 가입 후 주어지는 등급은 클럽장

의 승인을 통해 자격이 주어지며 [KADUS 소개] 안에 있는 게시물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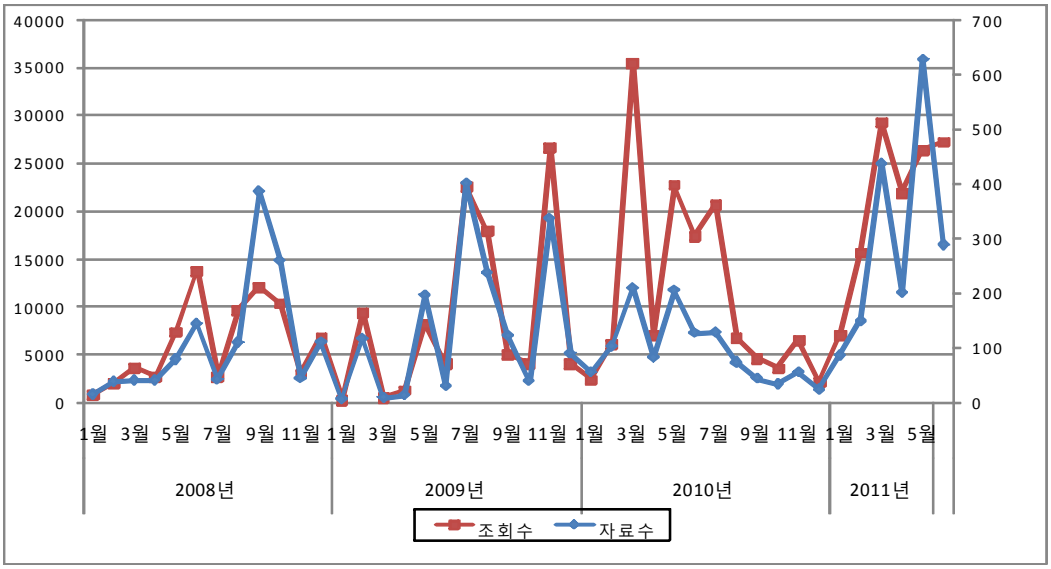
가입 후 자기소개의 글을 올리고 활발히 농대연 홈페이지에서 활동하면 정식회원으로 승격되며, [역대임원진]과 [기타자료실] 외 모든 게시판 열람이 가능하다. 명예회원은 농대연에서 임원 활동을 했던 회원 중에 대학(원)을 졸업한 자에게 주어지며, 재학 중일시 회원으로 한다. 후원회원은 본 회에 일정한 후원을 제공하거나 농대연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 회원이 추천하고 임원회의에서 인정한 자이다. 연구자의 회원 등급으로 인해 자료를 열람할 수 없는 [역대임원진]과 [기타자료실]메뉴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초기 화면 상단에는 커버스토리로 소개하고 싶은 사진이나 포스터 등을 올릴 수 있으며, 하단에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최근 새 글을 각각의 메뉴를 들어가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앙의 하단에는 세미나나 정기총회 등의 회원들의 활동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 페이지 오른쪽에 커뮤니티의 메뉴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회원들은 오른쪽 상단의 '내정보'를 통해 본인의 등급과 커뮤니티의 총 방문수, 게시글의 수, 댓글의 수를 열람할 수 있다. 오른쪽 하단에는 현재 접속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어 커뮤니티 내에서 회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2. 커뮤니티의 내용 분석

1) [KADUS] 내용에 대한 개요

[그림 IV-2]에서 뚜렷하게 조회수가 증가했던 달은 2009년 10월, 2010년 3월, 5월과 2011년 3월, 5월, 6월이었다. 이것은 [KADUS 공간]의 조회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던 메뉴는 주로 「대학정보」, 「공지사항」, 「자기소개」, 「자유게시판」에 오른 자료로써, 가장 높은 조회수의 자료는 '장애인 대학생의 지원' 이었으며, 이 밖에 '임원 선출, MT, 체육대회, 농인가정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한국수화사전어플정보, 구화 vs 말' 등에 관한 것이다.



[그림 IV-2] 농대연 전체 자료수와 조회수 (2011년 6월 기준)

아래 <표 IV-3>는 농대연의 연도별 자료수와 조회수를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 온라인 커뮤니티는 2011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전체 자료수는 5,854건이었다. 연도별 자료수의 현황을 보면, 개설 초기보다는 개설 후기인 2011년에 게시된 자료의 수가 가장 많았다.

<표 IV-3> 농대연 연도별 자료수와 조회수 (2011년 6월 기준)

년도 / 월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자료수	조회수	자료수	조회수	자료수	조회수	자료수	조회수
1월	15	860	6	301	56	2,428	86	7,147
2월	39	2,105	117	9,456	103	6,160	150	15,746
3월	41	3,751	9	610	210	35,532	438	29,317
4월	41	2,814	13	1,320	82	7,114	119	21,910
5월	79	7,456	197	8,286	206	22,797	628	26,436
6월	145	13,774	31	4,100	128	17,483	289	27,298
7월	43	2,774	401	22,598	129	20,704	-	-
8월	110	9,701	238	17,972	74	6,832	-	-
9월	386	12,118	123	5,070	45	4,670	-	-
10월	260	10,428	40	4,114	34	3,642	-	-
11월	45	3,089	337	26,720	56	6,539	-	-
12월	111	6,933	90	4,171	24	2,270	-	-
합계	1,315	75,803	1,602	104,718	1,147	136,171	1,710	127,854

2011년 자료 중 [KADUS 추억] 메뉴에 1,192개의 가장 많은 사진 자료가 업로드 되어 있었으며, 2010년 자료 중 [KADUS 공간] 메뉴의 조회수가 59,281건이었다. [KADUS 추억]은 농대연의 오프라인 행사 사진들이 업로드 되어 있는 메뉴로, 2011년도에 가장 활발한 활동 모습들을 올려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ADUS 공간]은 공지사항, 자기소개, 익명토론실, 방명록 메뉴의 조회수가 높았다. <표 IV-4> 주요 메뉴별로 자료수와 조회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IV-4> 농대연 하위메뉴별 자료수와 조회수 (2011년 6월 기준)

	KADUS 소개	KADUS 공간	KADUS 홍보	KADUS 자료	KADUS 추억	합
개설 시기	2008년 3월	2008년 1월	2008년 2월	2008년 3월	2008년 2월	-
총 자료수	104 (1.8%)	1,731 (29.6%)	549 (9.4%)	144 (2.5%)	3,328 (56.8%)	5,856 (100%)
월평균 자료수	2.6	41.2	13.4	3.6	81.2	-
총 조회수	28,573 (6.4%)	157,722 (35.5%)	34,776 (7.8%)	5,240 (1.2%)	218,235 (49.1%)	444,546 (100%)
월평균 조회수	714.3	3755.3	828.0	131.0	5322.8	-

<표 IV-4>는 총 자료수와 월평균 자료수가 가장 많은 메뉴가 [KADUS 추억]으로, 전체 자료 중 56.8%가 [KADUS 추억]에 있음을 나타낸다. [KADUS 추억]은 218,235건(49.1%)으로 전체 조회수와 월 평균 조회수(5322.8) 역시 가장 많았다. [KADUS 추억] 메뉴에는 '체육대회, 농인의 날, 정기총회, OT, MT, 지역모임' 등 농대연의 오프라인 행사를 담은 동영상과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진 자료가 게재되어 있다. 이는 회원들이 온라인에서의 만남에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지는 친목과 대인관계에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2) [KADUS] 메뉴별 내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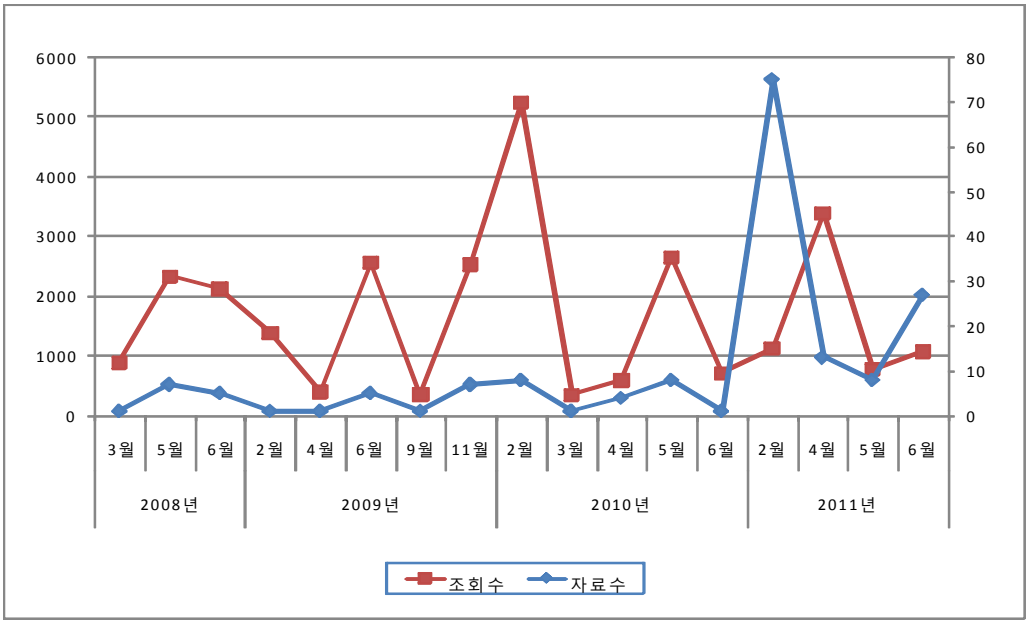
(1) [KADUS 소개] 메뉴 분석

[KADUS 소개]는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에 대한 소개와 함께 「조직도, 임원진, 내부자치회, 연대기, 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 7개의 게시판의 자료는 모두 임원진에 의한 게시글로 농대연 커뮤니티 메뉴 중 가장 적은 자료(N=104)가 게시되어 있다.

<표 IV-5> [KADSU 소개] 하위메뉴별 자료수와 조회수 (2011년 6월 기준)

하위메뉴	KADUS?	인사말	조직도	임원진	내부자치회	연대기	회칙	합
자료수	3	4	5	33	19	105	5	174
조회수	789	3,052	4,971	13,855	2,620	2,481	805	28,573

[그림 IV-3]에 따르면 자료수는 2011년은 2월에 가장 높았으며, 조회수는 2010년 2월 가장 높았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2011년 2월은 「연대기」 게시판의 자료수가 가장 많았는데, 그 이유는 2000년(1대)부터 2011년(12대)까지의 행사 사진과 동영상이 2011년(12대)에 한꺼번에 업로드 되었기 때문이었다. 조회수가 가장 높았던 2010년 2월은 「임원진」 게시판의 2010년(11대) 임원진의 소개에 대한 회원들의 높은 관심의 결과로 나타났으며, 회원들의 댓글 역시 47개로 2011년(12대) 임원진의 댓글이 43개인 것에 반해 회원들의 임원진들의 관심과 기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인사말」 게시판에서도 다른 해의 임원진과 달리 회장과 부회장 모두 인사말을 남긴 특징도 있어, 임원진들의 활동성도 엿볼 수 있었다.



[그림 IV-3] [KADUS 소개] 메뉴 자료수와 조회수 (2011년 6월 기준)

「KADUS?」 게시판은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의 소개로 총 3개의 글이 올라와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의 설립 목적과 단체의 성격을 소개하였으며 매년 정기총회를 통해 회장이 선출되고 임원들은 자발적으로 또는 추천을 통해 구성됨을 알 수 있다. 회장이나 임원으로서 요구되는 능력은 제한이 없으며 수화를 쓰지 않는 농(청각장애)학생뿐만 아니라 건청인들도 농대연 임원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농대연의 설립목적인 건전한 인간관계를 지향하고 농(청각장애)대학생과 건청 대학생과의 상호간의 이해를 통해 농(청각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인사말」은 2008년도 9대 회장부터 2011년도 12대 회장의 당선 소감이 쓰여 있다. 입후보자 등록 후 오프라인 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회장과 부회장은 2년제, 4년제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생이면서 역대운영진 중 회장단에 출마하고 싶은 임원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이렇게 선출된 회장단 중 2009년은 다른 해와 다르게 10대 회장과 10대 부회장의 당선 소감이 모두 올라와 있어 회원들의 조회수가 높았다. 역대 임원진과 회원들은 당선된 회장단에게 축하와 앞으로

의 활동에 대한 기대심을 댓글로 표현하였다.

「조직도」는 2000년도 1대부터 2011년도 12대 임원진들을 한눈에 보기 좋게 부서명과 이름을 도표로 작성한 메뉴이다. 2010년은 11대 임원진과 온라인 커뮤니티 개설 전까지 활동하였던 2000년(1대)부터 2007년(8대)까지의 임원진의 조직도도 함께 올라와 있어 회원들의 조회 수가 어느 해 보다 높았다. 이를 통해 회원들은 농대연에서 단순한 정보교류 뿐만 아니라 농대연을 이끌고 있는 임원진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임원진」은 매년 새로 선출되어 임원진들의 사진, 이름, 재학 중인 학교 이름, 사진 등을 첨부한 게시판으로 각 부서의 임원진들을 소개하였다. <표 IV-6>에서 부서와 임원진 구성을 살펴보면 2008년은 통역부와 기획부가 없었으며, 2009년은 사무국이 없다. 2010년에는 문화부가 없어지고, 통역부와 내부자치위원회가 개설되었으며, 2011년에는 기획부가 개설되었다. 이렇듯 매년 부서의 변화가 빈번하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고 그 해마다 현실 상황에 맞는 조직의 융통적인 운영과 변화가 필요한 편성이 우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IV-6>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 부서와 임원진의 구성

2008년(9대)	2009년(10대)	2010년(11대)	2011년(12대)
회장단(회장,부회장)	회장단(회장,부회장)	회장단(회장,부회장)	회장단(회장)
-	-	내부자치위원(위원장)	내부자치위원(위원장)
사무국(국장)	-	사무국(국장)	사무국(국장)
총무부(부장, 차장)	총무부(부장, 차장)	총무부(부장,서기)	총무부(회계,서기)
문화부(부장, 차장)	문화부		
정책부(차장)	정책부	정책부(부장,차장)	정책부(부장)
정보관리부(부장,차장)	정보관리부	정보관리부(부장,차장)	정보관리부(부장,차장)
홍보부(부장, 차장)	홍보부	홍보부(부장,차장)	홍보부(부장)
-	-	통역부(부장,임원2명)	통역부(부장,차장2명)
-	-	-	기획부(부장,차장2명)

「내부자치위원회」는 남·녀, 임·회원, 선·후배간의 평등한 농대연을 위하여 회장 직속기구로서 2010년 11대 농대연에 출범하여 온라인 농대연 커뮤니티 내에 「내부자치위원회」 게시판으로 신설되었다. 내부자치규약(제안)과 여성주의, 반권위주의 관련한 글을 올려 자유로운 댓글 형식으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표 IV-7> [내부자치위원회] 내용 분석 (N=19) (2011년 6월 기준)

내부자치위원회 게시판 세부적 분석 내용		자료수	백분율(%)
MT 문화		3	15.8
성	성문화	3	15.8
	성폭력	2	10.5
인권	장애인인권	5	26.3
	여성인권	2	10.5
게시판		3	15.8
호칭 사용		1	5.3

내부자치위원회 게시판의 세부 결과를 보면 전체 19개의 글 중, 장애인 권리에 관한 게시글이 26.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MT 문화와 성문화, 게시판이 15.8%로 비교적 비율이 높았다. 농대연의 커뮤니티는 일반 회원들과 차별화된 권한을 갖는 관리자가 관리하는데, 이들은 다른 회원들의 활동을 조정, 리드함으로써 회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농대연는 이런 토론을 활성화시키며, 내부자치위원회는 다른 회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문제 회원들을 찾아내 농대연의 회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연대기」는 2000년 9월 30일 제1대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 출범식 사진부터 2011년 5월 24일 12대 체육대회까지 농대연에서 치뤘던 행사 사진과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이다. <표 IV-8>을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11년 6월까지 농대연에서 실시되었던 농대연의 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계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운영됨을 알 수 있다.

<표 IV-8> [연대기] 게시판의 자료 분석(N=104) (2011년 6월 기준)

년도	행사	조회수
2000 (1대)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 출범식	30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 공식 활동 시작	26
	제1회 전국 운영진 회의, 각 특수학교 진학상담 활동보고 및 평가회	25
	제1회 체육대회 개최	22
	중부지역 제 1회 정기총회	18
2001 (2대)	LT(Leadership Training)	20
	벤치마킹 홈페이지 개설	14
	청능연구팀 발족	16
	남부지부 제 1회 정기총회, 회칙 개정	16
	수화통역 연수	11
	아시아농아대학생연합회 참가	10
	농아대학생 대학생활 실태 설문 조사와 서명운동 실시	9
	장애인 재활 국제학술대회 참여	11
	대학진학 정보제공을 위한 노하우북 제작, 고등학생 캠프	11
	MT(Membership Training)	11
	중부지부 모임	10
	농대연 1주년 기념행사	11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진학 설명	10
2002 (3대)	OT(Orientation Training)	10
	'농대연이 간다'	12
	MT	11
	농대연 출범 2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 개최	12
	정기총회	11
	이모저모	13
2003 (4대)	OT	14
	농아인의 날 참가	13
	MT	12
	LT	11
	농대연 출범 3주년 기념식	13
	전국농아인수화경연대회	9
	청각장애 고등학생을 위한 대학 진학설명회	13
	정기총회	9
2004	LT	10

(5대)	국토대장정	11
	장애인 교육권 순회 투쟁 참석	8
	장애 대학생 고등교육권 간담회	9
	대학 진학 설명회	10
	장애인 고등교육권 토론회	9
	정기총회	8
	이모저모	12
2005 (6대)	LT	11
	OT	11
	수화교실	12
	농인 인권보호 집회	9
	일일호프	10
	국토대장정	10
	MT	10
	전국 농아인 결의대회	9
	세미나	10
	정기총회	10
	이모저모	15
2006 (7대)	LT	12
	OT	13
	세미나 '교수님 강의를 듣고 싶어요!'	13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전국학생대회	14
	세미나 '원활한 수업을 위한 청취 보조 장비'	12
	한국농아인협회 창립60주년기념 행사 자원봉사	12
	MT	14
	장애민중현장활동캠프	14
	전국장애활동가대회	14
	세미나 '농대학생의 직업과 미래'	16
2007 (8대)	Homecoming Day	29
	LT	27
	Off-line	27
	Homecoming Day	118
	4.20	64
	Off-line	22
	Seminar	171
	남부모임	24
	MT	230

2008 (9대)	4.20 지역연대간담회의	19
	광주민주화운동 참배	17
	'A Festival of Their Own'	18
	학술제	65
	정기총회	30
	epilogue	17
2009 (10대)	LT	14
	세미나 '농대학생들, 더불어 하나로 정체성 찾아보자	30
	MT	16
	제2회 농학술제 및 정기총회	19
2010 (11대)	LT 및 인수인계	18
	OT 및 임시총회	12
	4.20공동투쟁단 참여	13
	세미나 '농대학생의 커뮤니케이션'	11
	여름캠프	28
	지역모임	20
	찾아가는 농대연 '미니강연'	21
	정기총회	23
	<창립 10주년 기념영상> 2000, 1대	18
	<창립 10주년 기념영상> 2001, 2대	12
	<창립 10주년 기념영상> 2002, 3대	14
	<창립 10주년 기념영상> 2003, 4대	16
	<창립 10주년 기념영상> 2004, 5대	17
	<창립 10주년 기념영상> 2005, 6대	18
	<창립 10주년 기념영상> 2006, 7대	26
	<창립 10주년 기념영상> 2007, 8대	57
	<창립 10주년 기념영상> 2008, 8대	57
	<창립 10주년 기념영상> 2009, 10대	58
	<창립 10주년 기념영상> 20010, 11대	96
2011 (12대)	KADUS 10주년 행사 준비위원회 회의모습	150
	LT	100
	OT	99
	OB모임	100
	체육대회	98

2010년(11대)에는 '농대연 창립 10주년'을 맞아 2000년(1대)부터 2010년(11대)까지 매년 있었던 행사를 바탕으로 역대 회장들의 축하메시지와 함께 제작된 기념 영상이 올라와 다른 해보다 높은 자료수를 기록했으며, 회원들의 조회수 역시 높았다.

<표 IV-9> [연대기] 게시판의 연도별 자료수 (N=105)

연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자료수 (건)	5	13	6	8	8	11	10	10	6	4	19	5
백분율 (%)	4.8	12.4	5.7	7.6	7.6	10.5	9.5	9.5	5.7	3.8	18.1	4.8

두 번째로 많은 사진 자료가 올라왔던 2001년(2대)에는 임원들의 MT, 벤치마킹 홈페이지 개설, 청능연구팀 발족, 남부지부와 중부지부 정기총회, 회칙개정, 수화통역 연수, 아시아농아대학생연합회 참가, 농아대학생 대학생활 실태 설문조사와 서명운동, 장애인 재활 국제학술대회 참여, 대학진학 정보제공을 위한 노하우북제작, 고등학생 캠프, MT, 중부지방 모임의 자료를 다른 홈페이지로 링크해두었다. 2000년(1대) 보다는 농(청각장애)대학생들 학교생활과 진학을 고민하고 있는 농(청각장애)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하는 오프라인 활동들이 엿보였다. 그러나 다른 해보다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준 2001년(2대) 자료는 링크된 주소로 연결되지 않아 구체적인 행사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다.

세 번째로 많은 사진 자료가 올라왔던 2005년(6대)에는 2004년(5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농아대학생 국토대장정이 있었으며, 국토대장정 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호프 행사도 있었다. 그러나 다음해인 2006년부터는 농아대학생 국토대장정 행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진행되다가 없어진 행사로는 2000년(1대)부터 2004년(5대)까지 있었던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대학진학설명회도 있다. 이를 통해 선배로써 대입을 준비하는 농(청각장애)학생들에게 올바른 대학생활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회칙」은 오프라인 정기총회에서 논의한 뒤, 개정할 회칙안을 총회에서 설명하

고 질답시간을 가지고 동의를 받은 후, 회칙 개정 공표를 통해 이루어진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2007년(8대), 2008년(9대), 2010년(11대) 세 번의 회칙 개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2007년(8대) 회칙개정을 살펴보면 농대연의 명예회원과 후원회원을 명확히 구분하였다. 구화인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집행부에서 하는 통역담당을 통역교육부를 부활시키고, 기획부, 집행부는 정책부로 통합시켰다.

2008년(9대)에 개정된 회칙은 회원관리를 정보관리부의 직무로 이전시키고, 시위는 임원회의 과반수 동의하에 집행하며, 공문서 관리를 사무국의 직무로 이전하고 문화부의 직무를 개설하였다. 이렇게 부서의 변화를 두는 것은 형식적인 것보다는 조직의 융통적인 변화와 과도기적 상황에 맞는 조직 편성과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10년(11대)는 LT에서 회칙개정을 발의하고 한달간 공고한 후 3월 6일 임시총회를 열어 개정할 회칙안을 설명하고 질답시간을 가지고 통과하였다.

(2) [KADUS 공간] 메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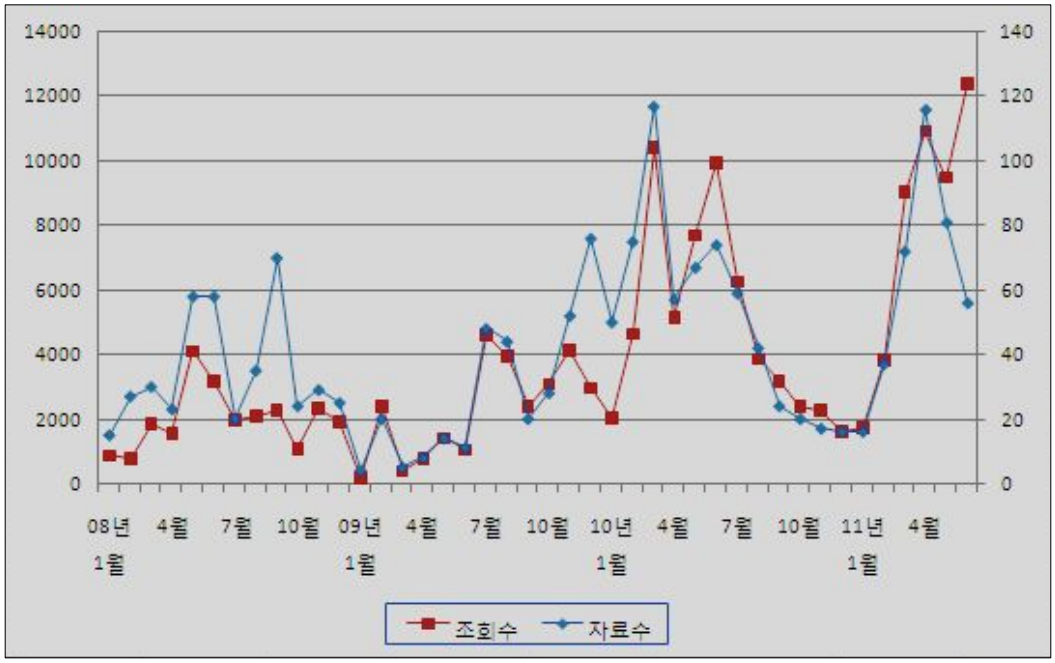
[KADUS 공간]은 「공지사항, 자기소개, 자유게시판, 익명토론실, 대학정보, 지역모임, 방명록」의 총 7개로 구성된 메뉴이다. 이는 모두 인터넷 커뮤니티 내의 커뮤니케이션 소통과 관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IV-10> [KADSU 공간] 하위메뉴별 자료수와 조회수

하위 메뉴	공지사항	자기소개	자유 게시판	익명 토론실	대학정보	지역모임	방명록	합
자료수	122	393	446	43	52	48	627	1,731
백분율(%)	7.0	22.7	25.8	2.5	3.0	2.8	36.2	100
조회수	30,179	51,334	51,542	5,574	9,608	9,485	0	157,722
백분율(%)	19.1	32.5	32.7	3.5	6.1	6.0	0	100

[KADUS 공간] 이외에 인터넷 커뮤니티 내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댓글(리플)과 오프라인 모임 참가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내의 커뮤니케이션은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으로까지 확장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농대연 역시 체육대회, 정기총회, 지역모임, M.T(Membership Trainig), L.T(Leadership Trainig), O.T(Orientation), 세미나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만남이 오프라인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 게시판 중 주로 임원진들의 게시글로 운영되는 곳은 「공지사항, 대학정보, 지역모임」이다. 「자기소개, 자유게시판, 익명토론실」은 회원들 간 상호작용이 활발한 게시판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하며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다. 「방명록」의 경우 올라온 게시글을 통해 자료수는 셀 수 있었지만, 조회수는 제공되지 않아 전체 조회수에서 제외시켰다.



[그림 IV-4] [KADUS 공간] 메뉴 자료수와 조회수

[그림 IV-4]를 살펴보면 2010년 3월(117건)과 2011년 4월(116건)으로 가장 많은 자료가 올라왔으며, 조회수는 2010년 3월, 2011년 4월과 6월이 가장 높았다. 자료수가 가장 많이 올라온 2010년 3월에는 「방명록」과 「자기소개」 게시판의 글이 가장 많았으며, 2011년 4월은 「자유게시판」과 「자기소개」글이 가장 많았다.

「방명록」은 농대연의 오프라인 행사를 가진 뒤에 회원들의 게시글 수가 많았다. 「자기소개」는 학기가 시작되는 3월과 4월에 신규회원들이 집중되었고 댓글을 통해 새로 참여하는 회원들을 환영했다. 「자유게시판」은 특정한 주제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글을 남기는 곳이다. 비동시적(非同時的)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같은 시간대 온라인상에서 같은 장소에 있을 필요가 없는 방식이다. 또한, 게시글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쉽게 관련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궁금한 것을 묻고 답하는 데도 편리하다.

「공지사항」은 농대연에서 선출된 임원진들이 활동하는 곳으로 매년 농대연에서 치루는 오프라인 행사인 'MT, 체육대회, OT, 학술제, 정기총회, 임시총회' 등에

대해 회원들에게 안내되어있다.

<표 IV-11> [공지사항] 게시판의 내용 분석 결과 (N=122)

공지사항 주제	게시글	백분율(%)
체육대회	13	10.7
게시판 사용	5	4.1
임원진 소개	28	23.0
MT	22	18.0
OT	9	7.4
지역모임	8	6.6
학술제 및 세미나	22	18.0
장애인의 날, 농인의 날	2	1.6
회칙	1	0.8
영화 '도가니'보조출연	1	0.8
총회	6	4.9
LT	5	4.1

<표 IV-11>을 살펴보면, 공지사항에서는 매해 선출되는 임원진들의 소개와 인사말, 임원진 모집에 관한 임원진 관련 게시글이 28건(20.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오프라인 행사인 MT, 학술제 및 세미나, OT에 관한 글이 가장 많았다. 이는 농대연이 추구하는 친목도모와 정보교류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회원들 역시 친목과 정보교류에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IV-12> [공지사항] 게시판의 연도별 자료수와 조회수

년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자료수	22	38	34	28	122
백분율	18.0	31.1	27.9	23.0	100
조회수	3423	6605	10260	9891	30,179
백분율	11.3	21.9	34.0	32.8	100

2008년 온라인 커뮤니티 개설 이후 「공지사항」 게시판을 활발하게 운영한 해는 2009년(10대)으로 회장단의 당선소감, 10대 임원진 모집공지, LT, 사업일정, 세미나, MT, 학술제 등 총 38개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다른 해와 달리 회원들에게 한 해의 사업 일정 전체를 미리 안내하고 각 행사의 내용과 일정표, 비상연락망을 게재하였여 회원들의 관심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자기소개」는 신규회원을 환영하기 위해 비실시간 환영의식을 열고 있는 게시판이다. 「자기소개」게시판은 정해진 틀이 없기 때문에 올라온 393개의 글의 내용과 형식이 다양했다.

<표 IV-13> [자기소개] 게시판에서의 장애여부 (N=393)

농(청각장애)학생	건청학생
236명(88%)	32명(12%)

자기소개 내용에 장애여부를 밝힌 276개 자료 중 농(청각학생)학생과 건청학생의 비율을 살펴보면 농(청각장애)학생이 236명(88%), 건청학생이 32명(12%)으로 농(청각장애)학생의 가입률이 7배 정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이 가지는 강력한 매력 중의 하나가 익명성이라면 이 메뉴는 회원들의 자기소개를 통해 보다 강한 친밀감을 형성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자기소개'는 온라인 상에서의 시·공간적 거리감을 감소시키고 현실에서와 같은 친밀감을 형성하여 회원들 간에 보다 활발한 상호작용을 유발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입한 회원수가 2011년 6월 현재 600명이 넘는데 비해 올라온 자기소개의 글의 수는 393개로 적은 것을 보면 자기소개를 하지 않는 회원들은 커뮤니티 활동에서 자료를 열람하고 조용히 관찰하는 소극적인 회원들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자기소개를 게시한 회원들은 다른 회원들에 비해 농대연 활동에 보다 적극적이며 소속감을 더 많이 갖고 있는 회원이었다. 새로 참여한 신규회원이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올렸을 때 임원진뿐만 아니라 기존 회원 중 누구라도 댓글을 올릴 수 있다. 이미 가입한 회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첫발을 딛는 신규회원에게

댓글로 따뜻한 인사말을 전하였다.

<표 IV-14> 농(청각장애)학생 전공 현황 (N=136)

학과	디자인	사회복지	체육	재활	컴퓨터	경영행정	미술	사범대	방송	기타	합
학생수(명)	42	24	10	10	10	8	8	7	5	12	136
백분율(%)	30.9	17.6	7.4	7.4	7.4	5.9	5.9	5.1	3.7	8.8	100

농(청각장애)학생 중 본인이 재학 중인 학과를 입력한 136명의 학생들의 전공 현황은 <표 IV-14>와 같다. 농대연에 가입한 건청학생 32명의 학과는 모두 다른 반면, 농(청각장애)학생들은 디자인과 사회복지에 관련된 학과에 많이 재학 중임을 알 수 있다. 디자인, 미술은 전체 50명(36.8%)을 차지해 농대연 커뮤니티에 가입한 농(청각장애)학생들은 예술관련학과에 가장 많이 재학 중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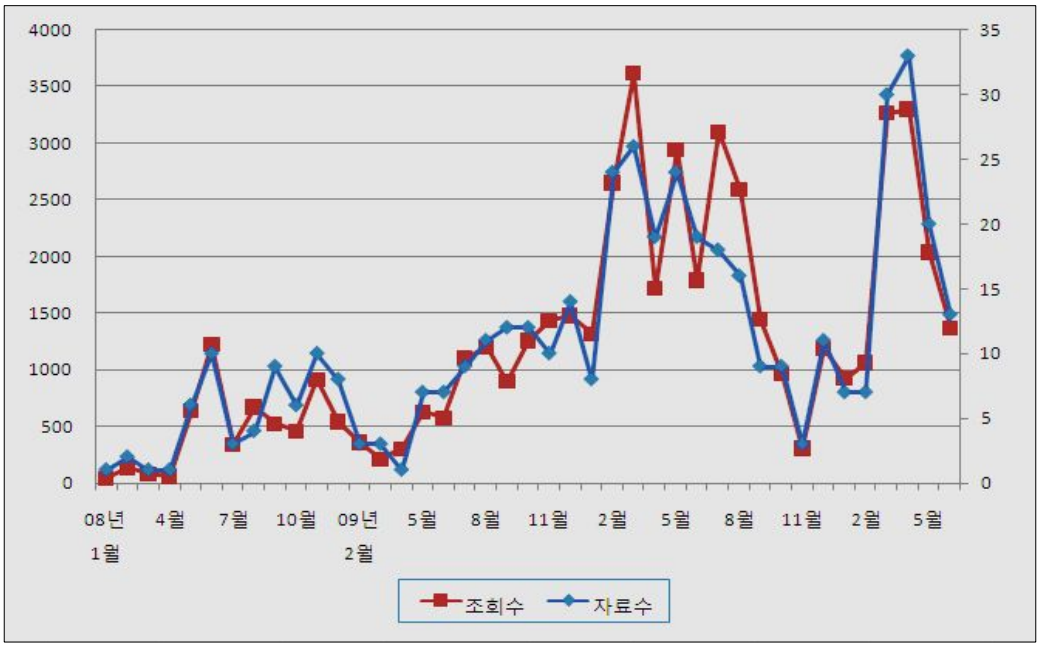
<표 IV-15> 농대연 커뮤니티 가입경로 (N=136)

가입경로	회원수(명)	백분율(%)
인터넷 검색	16	11.8
홈페이지 이전으로 재가입	15	11.0
농대연 회원의 소개	103	75.7
오프라인 행사 참여 후 가입	2	1.5

<표 IV-15>는 자기소개 내용에 가입경로를 입력한 농(청각장애)학생들 136명을 분류한 결과이다. 이들은 농대연 회원의 소개에 의해 가입했거나 학교 수화 동아리의 소개를 통한 가입이 103명(75.7%)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한 가입이 16명(11.8%)이었으며, 네이트에 농대연 커뮤니티 개설 전 활동하였던 프리챌 농대연 커뮤니티가 패쇄되면서 재가입한 회원이 15명(11.0%)이었다. 또한,

먼저 농대연의 오프라인 행사를 참석한 후 가입한 회원도 2명(1.5%)있었다.

「자유게시판」은 '안부 인사글, 생활정보관련, 개인애로사항, 온라인커뮤니티 건의사항, 장애인 관련행사 정보, 뉴스기사, 오프라인행사 정보, 기타 등' 다양한 주제와 함께 회원들의 활발한 의견이 오가는 곳으로 총 446개의 글이 게시되었다. [KADUS 공간]의 7개의 게시판 중에서 2번째로 많은 자료수(25.8%)를 나타냈으며, 51,334건(32.5%)으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그림 IV-5] [자유게시판] 메뉴의 자료수와 조회수

[그림 IV-5]를 살펴보면 2011년 3월과 4월, 2010년 3월과 5월에 가장 많은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1년 단위로 봤을 때 학기초인 3월에 자료수와 조회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회원들은 농대연의 오프라인 행사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사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회원들은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한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보다 강한 유대감을 형성해 나가고 있었다. 일부

회원들은 오프라인 모임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자유게시판에 후기를 남겨 표현하기도 하였다.

2011년은 청각장애인을 소재로 한 영화·드라마가 많이 제작되었는데, 농대연의 「자유게시판」에서는 일부 청각장애인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나 드라마가 다수의 청각장애인을 대표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편견의 글들의 조회수가 높았다. 또한 회원들은 댓글을 통해 비장애인이 만들어 놓은 잣대를 통해 청각장애인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하는 내용이었다. 2010년은 5월은 청각장애인으로 프랑스에서 모델 겸 배우로 활동 중인 미스 프랑스 소피부즐로가 내한하여 농대연 회원들과 인터뷰한 글이 높은 조회수를 나타냈다. 국적은 다르지만 동갑내기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소피부즐로와의 인터뷰와 강연 내용은 농대연 회원들에게 높은 관심과 동질감을 주었다.

<표 IV-16> 연도별 [자유게시판] 자료 분석

날짜		글제목(내용요약)	조회수	댓글수
08년	8월	회원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인공와우 수술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물음)	335	40
	6월	농대연의 촛불집회 참가에 대해 감히 한 말씀 올립니다. (촛불집회 불참하자는 의견 제시)	313	25
	7월	구화냐 수화냐 아니라고, 청각장애는 병원에서 의학적으로 상식이라 말한다. (구화와 수화에 대한 의견)	194	1
09년	4월	참 심심하군요... (10대 운영진 이후로 홈페이지가 비활성화 되어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	305	17
	8월	전하상형님 피플 투멤남 대셨네요 (농대연회원이 SNS(싸이월드)에서 오늘의 인기남으로 홈페이지 메인으로 등장한 것을 축하)	263	10
	11월	학술제논문 (학술제에서 1~3장밖에 안 되는 논문을 써내는 불성실함을 질타하는 의견)	215	13
10년	1월	2월 친목도모 모임	475	54
	6월	찾았습니다.	409	26

		(홈페이지 게시글을 운영진이 강제 삭제와 이동 시키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		
	7월	오늘 올라온 MT공지에 대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소수의 의견만으로 이번 MT 에서 술을 마시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비판)	411	27
11년	3월	이 분을 아십니까? (안중근의사 사진을 제시하고 이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질문을 통해 역사의식과 민족의식 반성)	239	17
	5월	농인 가정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과제 중 궁금한 점! (건청대학생이 회원들에게 농인 엄마와 청인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수화교육에서 '말하기'를 추가해야할지 조언을 구함)	213	10
	6월	2011년 6월 3일 농대연 프리허그 (농아인의 날을 기념한 오프라인 행사 후기)	222	11

<표 IV-16>는 「자유게시판」에서 연도별로 조회수가 높았던 3개의 글을 순서대로 조사한 것이다. 2008년도는 인공와우 수술에 관한 글의 조회수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농대연의 촛불집회 참가, 이중문화이중언어에 관한 글이었다. 2009년도는 게시판이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글의 조회수가 가장 높았으며, 네이트온에서 운영하는 그날의 가장 인기 있는 사람으로 농대연 회원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글과 학술제의 논문의 질이 예전보다 떨어진다는 글의 순서로 조회수가 높았다. 2010년도는 오프라인 친목 모임 공지, 게시판 사용, MT 순으로 조회수가 높았다. 2011년도는 안중근의사, 농인 가정에서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농대연 프리허그 순으로 조회수가 높았다. 이처럼 매년 다양한 주제의 글들이 「자유게시판」에 올라옴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익명토론실」은 2011년(12대)에 개설되어 인터넷의 특징인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열린 온라인 문화의 구축을 위한 메뉴이다. 「익명토론실」을 통해 농대연 회원들의 토론의 주된 관심사가 사회이슈보다는 그들의 공통 분모인 농(청각장애)인에 대한 주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오프라인 속에서의 농인들과의 관계와 어울림, 선후배 사이 간의 인간관계도 대학생활에 빠질 수 없는

주제임을 알 수 있었다. 회원들은「익명토론실」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며 활발한 토론 문화를 형성했다.

<표 IV-17> [익명토론실] 게시판의 내용분석 결과 (N=41)

익명토론실 주제	게시글수	백분율(%)
청각장애 소재의 드라마・영화	2	4.9
청각장애로 인한 피해 (술집문전 박대, 도난, 비하)	3	7.3
MT	4	9.8
농인과의 관계 (어울림, 적대관계, 선후배와의 관계)	3	7.3
게시판 이용	4	9.8
청각장애의 분류 (구화인과 완농인)	12	29.3
국제결혼	2	4.9
장애인의 날	3	7.3
인권 (가정문제, 남녀차별)	3	7.3
기타 (강의, 핀란드교육, 행사, 취미, 학교지원서비스)	5	12.9

연구결과에 의하면,「익명토론실」에서는 29.3%로 농(청각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수화를 주된 언어로 사용하는 농인(deaf)과 구화를 주된 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hearing impairments)으로 구분한 농인의 분류가 토론주제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게시판 이용'과 ' 'MT', '농인과의 관계' 에 관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표 IV-18> 청각장애 분류를 주제로 한 자료 (N=12)

일시	글제목(내용요약)	조회수	댓글수
2011년 6월 5일	농인들에게 궁금한 점 (청각장애인의 언어 구사능력)	309	34
2011년 6월 1일	농(聾,귀머거리)과 아(啞,벙어리)에 대한 개념 정리 (완농인과 구화인에 관한 내용)	122	10
2011년 6월 1일	청각장애인? 수화인? 구화인? 대하여 선배의 입장으로 정리하면 (완농인과 구화인에 관한 내용)	151	6

2011년 5월 31일	구화인 vs 완농인에 대해 솔직해집시다.	246	27
2011년 5월 31일	여러분 가식 그만 떠세요. (청각장애인들 내에서 완농인과 구화인에 대한 구분에 관한 솔직한 생각을 물어봄)	236	11
2011년 5월 30일	밑에 글들 보니까.. 뒤틀린 사고방식 가진 분들 많네요. (완농인과 구화인의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의견)	129	5
2011년 5월 25일	구화인도 농아인인가요?	197	19
2011년 5월 19일	아침에 (청각장애인으로서 아침 기상에 관한 질문과 의견)	101	2
2011년 4월 25일	수화를 쓰는 농아인과 구화를 쓰는 농아인들의 어울림에 대해서...	150	5
2011년 4월 24일	우리는 소리가 필요없습니까?	139	5
2011년 4월 18일	4월 20일 불법모금하는 청각장애인들 혼내줍시다.	179	28
2011년 4월 14일	우리들의 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여질까? (청각장애인 내에서 비춰지는 자신들 글의 모습에 관한 내용)	114	7

<표 IV-18>은 익명게시판에서 활발하게 토론되는 농(청각장애)를 분류하여 토론하고 있는 12개 자료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구화와 수화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른 분류, 구분하는 것 자체의 무의미, 수화를 주로 사용하는 농인들에 문장능력 등이 있었다. 익명게시판의 댓글을 살펴보면, 완농인과 구화인을 서로 구분짓는 것보다는 통합하여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기 위한 회원들은 자신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조율해 가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대학정보」게시판은 대학입시 정보와 더불어 대학생활을 시작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경험과 조언을 통해 신입생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대학생활과 학업을 이어나갈 정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표 IV-19> [대학정보] 게시판의 내용분석 결과 (N=52)

대학정보	자료수	백분율(%)
대학입시 정보	6	11.5
장애학생지원	11	21.2
대학생활 경험담 및 조언	30	57.7
기타	5	9.6

<표 IV-19>의 분류를 살펴보면, 대학입시정보는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 관한 글이 게시되어 있고, 장애학생지원은 장애인대학생 교육권, 학교지원, 장애대학생 도우미지원 사업에 관련된 정보 등이 게시되어있다. 대학생활 경험담 및 조언은 OT, MT부터 시작해서 미팅, 소개팅, 동아리활동 등 대학 생활에서 겪게 되는 차별과 장애학생에 대한 배려가 없는 상황에서 대처법, 수업을 효과적으로 듣기 위한 조언들을 통해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특이사항으로 게시된 글들의 조회수가 300회 미만인데 반해, 유독 '장애인대학생의 지원, 이제 '차별금지'이다.' 라는 제목의 게시글은 조회수가 2310건이었다. 이는 농대연 회원들이 일반학생들과 겪는 차별에 대한 관심과 대학생활에서 본인들이 요구할 수 있는 내용, 그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모임」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농대연 회원들의 지역별 소모임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메뉴이다. 농대연의 오프라인 지역모임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적으로 흩어져있는 회원들이 오프라인에서 만나 친목을 도모하고 사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둘째, 회원들에게 정보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회원들은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하여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보다 강한 유대감을 형성해 나가고 있었다. 일부 회원들은 오프라인 모임에 대한 후기 글과 사진을 업로드함으로 각별한 애정을 표현하였다.

<표 IV-20> [지역모임] 게시판의 내용 분류 (N=48)

연도 / 게시글 수	2010년		2011년	
	모임공지	모임후기	모임공지	모임후기
게시글수	17	9	9	13
백분율(%)	65.4	34.6	40.9	59.1

<표 IV-20>을 살펴보면, 2010년은 모임 후기보다 모임 공지글의 비중이 높았으나, 2011년은 모임 공지(45.5%)보다는 모임 후기(54.5%)의 글의 비중이 높다. 농대연은 초창기부터 단순히 친목을 위한 모임에서부터 배움을 위한 세미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의 모임을 가졌다.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학술제 등이 수시로 열리고 있었다. 또한 지역별로 별도의 책임자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표 IV-21> [지역모임] 게시판의 지역 분류

지역	모임 공지	백분율	모임 후기	백분율
서울	5	19.2	8	36.4
경천(경기,천안)	5	19.2	5	22.7
대구	2	7.7	7	31.8
남부(호남)	1	3.8	-	-
부산	2	7.7	2	9.1
자유정팅	11	42.3	-	-

<표 IV-21>은 모임 공지글(N=26)과 모임 후기글(N=22)을 바탕으로 지역별 모임을 분류했다. 2010년에는 지역별 모임 외에도 자유정팅이라는 제목으로 회원들과의 동시간대 온라인 만남도 11건(42.3%)이 있었으나, 2011년 6월 30일 기준으로는 온라인 모임은 없었다. 상대적으로 서울과 경기도, 천안 지역의 모임 공지글과 후기글이 많았다.

「방명록」은 특별한 주제나 격식에 상관없이 자유로운 글쓰기가 가능한 게시판

이다. 방명록은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서 사용하는 캐릭터를 통해 회원들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회원들의 일상적인 내용이나 오프라인 모임 후기, MT에 대한 기대 등 자유로운 글들이 쓰여 있다.

(3) [KADUS 홍보] 메뉴 분석

[KADUS 홍보]는 「세미나/교육, 문화/봉사, 알바/취업, 정책/뉴스, 공모전, 기타 게시판」의 6개 게시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농(청각장애)대학생들의 활동과 관심사를 살펴볼 수 있는 「세미나/교육, 문화/봉사, 알바/취업」 3개의 게시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세미나/교육」게시판에서는 농대연 초창기부터 장애대학생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세계 각국의 농문화, 수화, 영어 교육 등 농(청각장애)학생을 위한 다양한 목적의 세미나와 교육 행사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표 IV-22> 농대연의 [세미나/교육] (N=10)

일시	세미나/교육	조회수
2011년 6월	데프콜로키움 1회 첫모임	185
2011년 6월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어 프로그램 안내	179
2011년 2월	ASL(American Sign Language)개강 재공지	126
2010년 7월	한국수화학회	120
2011년 4월	제11기 장애인 청년학교	118
2011년 2월	농인교육프로그램 상담 하우스 오픈	113
2011년 3월	난 청각장애가 있어, 내 고민 좀 들어볼래?	112
2011년 2월	ASL(Amerian Sign Language)수업 : 수화사랑카페	110
2011년 6월	한국수어학당(청각장애인을 위한) 신청 받습니다.	108
2011년 3월	청각장애인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106

<표 IV-22>에 따르면 회원들의 관심도가 높은 상위 10개의 「세미나/교육」은 2011년에 가장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조회수가 가장 높았던 '데프 콜로키움(Deaf Colloquim)'은 농인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민과 생각을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자신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을 도와주는 모임이다. 또한 농(청각장애)대학생들은 영어, 수화,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화 교육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문화/봉사」 메뉴는 비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공연 문화와 봉사활동, 농(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와 봉사가 소개되어 있었다.

결과에 따르면 문화 영역은 56개, 봉사 영역은 10개의 글이 게시되었다. 문화 영역 중 농(청각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42건(75%)이었으며,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행사는 14건(25%)를 차지하였다. 농(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은 자막과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 농(청각장애)학생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였다.

<표 IV-23> [문화/봉사] 메뉴의 유형 분석 (N=66)

영역	문화		봉사	
	농(청각장애)	비장애인과 함께	농(청각장애)	비장애인과 함께
자료수(건)	42	14	8	2
백분율(%)	75	25	80	20

봉사 영역 중 농(청각장애)를 대상으로 하는 자료는 8건(80%)으로 주로 수화통역과 청각장애를 가진 중·고등학생들의 학습지원에 관한 봉사가 있었으며,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봉사영역으로는 여수엑스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캠프가 있었다.

「알바/취업」는 농(청각장애)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와 취업에 대해 안내되어 있는 메뉴이다. 아르바이트는 패스트푸드점과 패밀리레스토랑이 주로 많았고, 맡게될 업무는 주방업무 및 홀청소였다. 취업은 생산직과 수화통역 순으로 많았다.

앞서 「자기소개」 메뉴에서 농(청각장애)대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과가 디자인과 사회복지 관련학과가 많았던 반면, 「알바/취업」 메뉴에 올라온 직종들은 실제 재

학 중인 학과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V-24> [알바/취업] 메뉴의 자료 분석 (N=54)

아르바이트		취업	
업무	회사	업무	회사
주방보조 및 홀청소	롯데리아(10) T.G.I.F(2) 피자헛(2) 애슐리(2) 아웃백스테이크(2) 맥도날드 일반식당	수화통역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수화통역센터 우체국금융콜센터 롯데백화점
		인턴직	서울시행정인턴 평생교육진흥원인턴
		생산직	하나은행, 씨티은행
	스타벅스, 카페(4)	사무직	MBC방송국
컴퓨터관련	홈페이지홍보, 웹디자인	주방보조	오므토마토
실습생	청음회관 실습생(2)	의료직	코디네이터
조사연구원	장애관련 조사연구원(2)	사무보조	빙그레 생산직 LG전자 삼성전자 반도체 제이제이톨스(중소기업) 패션디자인(바느질)
기타	거리피켓홍보		
	노래수화지도		
	건축		
	유화채색		

「정책/뉴스」은 장애인의 복지, 교육, 문화, 법, 컬럼 등에 관한 글이 소개되어 있어 농(청각장애)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교류할 수 있게 하는 게시판이다.

<표 IV-25> [정책/뉴스] 게시판의 내용 분류 (N=72)

분류	복지	교육	문화	법	취업	성공사례	기타	합
게시글수	29	17	6	9	4	6	1	72
백분율(%)	40.6	23.6	8.3	12.5	5.6	8.3	1.4	100

장애인과 농(청각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내용이 25건(46.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소개된 법과 장애학생의 차별, 장애인의 교육권 확보에 관한 교육에 대한 내용의 순으로 많았다.

<표 IV-26> [정책/뉴스] 게시판의 내용 분석

분류	주제(내용)	일시	조회수
복지	공공보건의료기관 수화통역사 배치 의무화	2011년 5월 16일	50
교육	청각장애수험생에 수능 수화강의	2011년 6월 30일	115
문화	세계 유일의 시청각장애인 극단 '날라갓' (이스라엘 시청각장애인 극단 소개)	2011년 5월 10일	52
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쉽게 알기 - 1 (애니메이션을 통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안내)	2011년 4월 10일	50
취업	행안부, 중증장애인 공무원 31명 뽑는다. (행정안전부가 장애인 채용을 늘린다는 계획)	2011년 4월 12일	75
성공사례	6.2 지방선거 장애인 당선자 명단 (4명의 청각장애인 당선 의원)	2010년 6월 15일	92
기타	장애인용 스마트폰 요금제 나온다 (음성요금을 영상요금으로 변경을 통해 장애인 의사소통 돕는다는 취지)	2011년 4월 27일	128

복지와 관련된 게시글 중 조회수가 가장 높았던 주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수화통역사 배치 의무화' 로, 청각장애인에게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내용이였다. 교육과 관련된 게시글은 청각장애 수험생들에게 유용한 수화강의가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성공사례에서는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장애인 의원 중 4명의 청각장애를 가진 의원이 당선된 내용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7가지 영역 중 가장 높은 조회수는 '장애인용 스마트폰 요금제 나온다'였다. 사용하지 않는 음성요금제를 영상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다는 소식은 회원들에게 높은 관심을 얻었다. 세부 내용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액 요금제 구성을 변경, 영상 통화와 문자 등의 이용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유도해

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돕는다는 취지의 글이다.

「공모전」은 디자인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농(청각장애)학생들에게 다양한 공모전을 안내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끼와 적성을 펼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시판이다.

<표 IV-27> [공모전] 게시판의 내용 분석 (N=21)

	사진/포스터	캐릭터	디자인	글짓기	UCC	아이디어	앱	합
게시글	4	3	5	4	2	2	1	21
백분율	19.0	14.3	23.8	19.0	9.5	9.5	4.8	100

「자기소개」게시판 분석에서 농(청각장애)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재학 중이었던 디자인 관련 공모전이 5건(19.0%)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진/포스터, 글짓기, 캐릭터 순이었다.

V. 논의 및 제언

1. 논의

본 연구는 온라인 청각장애인 대학생 커뮤니티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농인의 온라인 공동체 문화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즉, 다른 장애에 비해 인터넷 이용률이 높은 청각장애와 인터넷 심화용도 중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에 관심을 두고, 현재 활동 중인 인터넷 커뮤니티 중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KDAUS)'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과정을 통해 청각장애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의 주요 특성을 알아보고, 커뮤니티의 구성 메뉴별로 중요한 특성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의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삶의 일부분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의도에 의해 수행된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대연 커뮤니티는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규정할 수 있다. 농대연은 성격상 '닫힌', '두터운, 카페형' 공동체이다. 즉, 집단의 경계가 명확하고, 구성원 간에 강한 소속감이나 현실공간에서의 관계가 사이버 공간으로 연계되는 닫힌 공동체(성동규, 2002)이며,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공공선(public good)을 추구하는 과정에 자신의 이익과 가치를 규정하는 두터운 공동체(장용호, 2002)라고 규정할 수 있다. 또한 공통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회원들 간의 수평적인 상호성이 매우 크게 작용하는 카페형 공동체(서이종, 2002)에 속한다.

둘째, 농대연 커뮤니티는 온·오프라인이 효율적으로 연계한 공동체이다. 농대연은 오프라인 정기 총회를 통해 매년 선출되는 회장단과 임원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소속 청각장애인 대학생들이 소속감과 동질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연구대상 커뮤니티는 다른 커뮤니티에 비해 공동 주인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다. 즉, 많은 커뮤니티들이 소위 '방장'과 같은 커뮤니티 대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특성이 있는데, 농대연 커뮤니티는 내부적으로 '열린 공동체'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배경에는 오프라인 공동체가 지역 중심으로 운영되고, 이것이 모인 온라인

연합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 개별적인 방사형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매우 독립적인 의견 개진과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를 보면, 2008년 농대연 초기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은 임원진이 대부분이었으나, 커뮤니티가 성숙해 갈수록 임원진 보다는 구성원 스스로가 커뮤니티의 주인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회원들이 오프라인에서 만나 친목을 도모하고 사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관심이 높았다. [KADUS 추억] 메뉴의 자료수와 조회수가 높았던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회원들은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한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보다 강한 유대감을 형성해 나가고 있었다. 일부 회원들은 오프라인 모임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자유게시판, 지역모임, 방명록」에 후기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회원들은 「공지사항」게시판을 통해 임원진들의 오프라인 행사 질문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기도 하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도 했다. 또한, 오프라인 행사 준비를 위한 준비 과정이나 오프라인 행사가 열리는 동안 바쁜 움직임과 행사 준비 상황의 많은 비중을 다른 회원들에게도 알리고 있었다. 오프라인 행사가 진행된 후 회원들의 반응과 기타 제안도 게시판을 통해 공유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는 오프라인 모임을 유발하고, 오프라인 모임은 온라인 활동을 활성화하고 강한 소속감을 경험하도록 하는 선순환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분명한 목적을 가진 공동체의 성격이 강하다. 커뮤니티를 구축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바로 커뮤니티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킴(2001)은 '카피(Copy)는 곧 사이트이다'라고 했다. 농대연은 커뮤니티의 목적을 다음의 카피(Copy)를 통해 밝히고 있다. 농대연은 '농(청각장애)대학생의 권익보호와 각 지역 및 대학모임 간의 친목도와 정보교류'라고 커뮤니티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농대연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커뮤니티이다. 농(청각장애)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대학생활과 교육권 등에 자료를 제공하며 회원들 간 친목도모와 정보교류를 위한 오프라인 행사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뚜렷한 목적에 의해 운영되는 커뮤니티인

만큼 농대연은 임원진뿐만 일반 회원도 자신이 알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특성을 보인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 학생을 위해 연도별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에 관한 글이 게시되어 있고, 장애인대학생 교육권, 학교지원, 장애대학생 도우미지원 사업에 관련된 정보 등이 게시되어있다. 또한 OT, MT부터 시작해서 미팅, 소개팅, 동아리활동 등 대학 생활에서 겪게 되는 차별과 장애학생에 대한 배려가 없는 상황에서 대처법, 수업을 효과적으로 듣기 위한 조언들을 통해 대학생활 경험담 및 정보를 교류하고 있었다.

넷째, 농대연 회원들의 주된 관심사는 사회적인 이슈보다는 청각장애 속에서의 수화와 구화를 구분하거나, 수화를 주된 언어로 사용하는 완농인과 구화를 주된 언어로 사용하는 구화인으로 분류한 주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 예를 들어, 게시판의 주제 중 완농인들이 구화인과 달리 언어구사력과 문장력이 떨어진다는 글에 대해서, 회원들은 각각 완농인, 구화인, 건청인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였다. 회원들은 구화인과 완농인을 올바르게 바라봐야 할 관점은 둘 다 청각장애인이라는 '농'에서 분류된 하위 개념이며, 각자 그 어느 것도 뛰어난 것이지도 않는 낮게 취급하는 걸로 보지도 않는 동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 이였다. 즉, 청각장애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토론을 통해 청각장애 관련 정보를 확대하고 정교화 할뿐 아니라 국내 상황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다 명료화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라인 농인 커뮤니티인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KADUS)'는 농(청각장애)학생이 농사회와 건청사회 중 어느 한 쪽의 사회만 살아가도록 하는 통제적인 상황보다는 자신의 장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다섯째, 농대연은 대학생 중심의 공간이므로 회원들은 대학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교류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때 시험 유의사항과 전달사항을 칠판에 적어주지 않고, 수화통역도 없이 교수님이 말로 설명해 당황했다는 내용과 신입생의 학습보조요청 문의 글에 선배들은 본인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후배들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또한 식당과 술집에서 청각장애인이라서 문전박대를 당한 경험과 공공장소에서의 예절에 관한 글은 경험담을

바탕으로 회원들끼리 정보교류를 하고 있었다. 즉, 이준우(2003)가 제시한 오프라인 농인문화와 유사하게, 온라인 커뮤니티는 대학생이면서 청각장애를 가진 비슷한 상황을 공유하는 주체들이 보다 긴밀하게 자신이 가진 소위 실천적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공동체 내에서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상황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는 집단을 통해 정서적 지원을 받는 장소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여섯째, 온라인 커뮤니티 중 특히 다양한 의견수렴과 토론이 「자유게시판」과 「익명토론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비동시적인 커뮤니케이션인 게시판을 통해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아도 메시지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회원들의 활발한 토론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를 통해 회원들은 자신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조율해 가는 과정을 볼 수 있었으며, 올라온 의견에 대한 댓글을 제시하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특히, 분석대상 커뮤니티는 공통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회원들 간에 수평적인 상호성이 매우 크게 작용하는 카페형 공동체(서이종, 2002)에 속하는 데, 비동시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인 자유 게시판을 가장 친숙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이것은 구성원들이 같은 시간대에 온라인상에서 같은 장소에 있을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메시지들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커뮤니티와 관련된 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고 궁금한 것을 묻고 답하는 데도 편리하다는 장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를 기초로 온라인 농 커뮤니티의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농사회 집단 중 하나인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KADUS)'를 대상으로 하였다. 농사회 특유의 한정된 집단의 수와 그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과 제한점이 있으므로 좀 더 다양한 농사회 집단을 연구한다면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개별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분석을 통해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학생들에 대한 인터뷰 자료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의 장점과 한계 등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참고문헌

권순황 (2001). **농문화 접근 태도에 따른 청각장애 학생의 언어 선호도 연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명선 (2002). **사이버 커뮤니티 참여자들의 활동 특성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주안 (2005).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제품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커뮤니티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 454-462.

나일주, 홍성연 (2003). 가상학습공동체 형성 과정 모형 연구. **교육공학연구**, 19(3), 101-122.

도준호, 조동기, 황상재, 박지희, 이승아 (2000). **인터넷의 사회문화적 영향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

박준식 (2001). 가상 공동체의 구성 원리와 함의: 지구적 두뇌의 관점.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9**, 47-84.

배성규 (2006). **청각장애인의 이중문화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질적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문식, 김유경, 서용한 (2002).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탐색적 연구. **부산대학교 영경제연구소 경영경제연구, 21**(1), 75-94.

서이종 (2002). **인터넷 커뮤니티와 한국사회**. 서울: 한울아카데미.

성동규 (2002). **사이버커뮤니티네이션**. 서울: 세계사.

성윤숙 (2003). 청소년의 삶의 질과 온라인 게임 이용 동기 및 결과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4**(2), 93-108.

송인섭, 김누리, 박소연, 한윤영, 이회현 (2008). **연구방법론.** 파주: 교육과학사.

신은화 (2006).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 성공 사례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현철 (2005). 한국의 인터넷이 창조한 새로운 공동체: 인터넷 커뮤니티. **시민사회와 NGO, 3**(1), 271-277.

요나이야마, 기무라, 이찌다 외 (2002). **농문화의 이해.** 농아사회정보원.

윤선영, 신경식 (2002). 가상커뮤니티의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기술 수용모델의 적용. **한국경영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 79-88.

이건 (2001). 사이버스페이스의 열린 공동체, 홍성욱·백욱인(편). **사이버스페이스 오디세이**. 창작과 비평사.

이소영 (2006). **온라인 커뮤니티의 사회적 지지가 커뮤니티 공동체 의식과 동일시 및 웹사이트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수현 (2003). **지식기여자의 지식기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국내 온라인 지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정민, 안성우, 최상배 (2002). 청각장애학생과 건청학생의 행동특성비교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4**(2),155-177.

이준우 (2003). **한국 농(聾)청소년의 농(聾)정체성과 심리사회적 기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재관 (2002). 커뮤니티 요소를 고려하하는 웹사이트 평가. **경영과학, 173호.**

이재현 (2000). **인터넷과 사이버 사회.**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장용호 (2002). **사이버공동체 형성의 역동적 모형**. 서울: 집문당.

장애인정보격차 실태조사 (2010). **한국정보화진흥원.**

전병호, 윤종훈, 송인암, 김병곤 (2005), 인터넷뱅킹 사이트의 서비스품질과 인터넷 이용자 개인특성이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정보시스템연구, 14**(1), 197-226.

정진영 (2002). 수화교육이 자아개념과 농문화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적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4(2), 99-120

최성규 (1997). **청각장애아의 심리**. 서울:도서출판 특수교육.

최성규, 강태인 (2000). 청각장애유아의 가정 환경, 의사소통 양식, 그리고 조기교육에 대한 소고. **난청과 언어장애, 23**(2), 155-171.

최순화, 이상민, 박기우 (2000). **사이버 커뮤니티의 가치평가.** 디지털대의 경영전략. 삼성경제연구소. http://search2.seri.org/seri/search.jsp, 2011년 7월 29일 검색.

킴 (2001). **성공적인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 전략.** 박광식 역, 안그라픽스.

한상원 (1994). **정보 커뮤니케이션의 이론과 실제.** 국회도서간보 제31권 6호

한재용 (2006).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요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 논문.

Armstrong, Arthur and John Hagel III (1996). The real value of on-line commuities, *Harvard Bussiness Review, 74*(3), 134-141.

Bat-Chava, Y. (2000). Diverdity of Deaf identities. *American Annals of the Deaf, 145*(5), 420-428.

Bimber, B. (1998). Toward an Empirical Map of Political Participation on the Internet, Paper for presentation at the 1998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sication, Boston, September.

Farrior, Julian; Sarah Heckscher; Paul Judy; Andy Kelly; Stacey Lawrence; Bill Morrison (1999). Online Communities. *Kellogg on Technology: The TechVenture '99 Anthology,* 255-274.

Fernback, Jan, Thompson, & Brad (1995). *Virtual communities:Abort, Retry, Failure?* http://www.well.com/user/hlr/texts/VCcivil.html 2011년 8월 2일 검색.

Hagel III., John, & Arthur G. Armstorng (1997). Net Gain : *Expanding Markets through Virtual Communities,* Cambrige, Mass.: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Hilery, George A. (1955). Definition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

Jones, Q (1997). Virtual-Communities. Virtual Settlements and Cyber Archaeology: *A Theretical Outline, Journal of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3(December).

Merriam-Webster Onlin Dictionary (www.m-w.com) 2011년 8월 2일 검색.

Padden. C. (1980). The Deaf community and the culture of Deaf people. InC. Baker,. Sign Language and community: Essays in honor William C.

Stokoe (pp89-013). Silver Spring, MD: National Association Deaf.

Padden. C., & Humphries, T. (1988). Deaf in America: Voices from a culture. Cabridge, MA:Harvard Univerdity Press.

Poplin, Dennis E. (1972). Communities; A Survey of Theories and Methods of Research. New York/London: Macmillan.

Preece, Jenny (2001). Sociability and Usability in Online Communities: Determing and Measuring Success. *Behaviour and Information Technology*, *20*(5), 347-356.

Rheingold, Howard(1992). *The Virtual Community.* Mit Pr.

Rheingold, Howard(2000), *The Virtual Community: Homesteading on the Electronic Frontier, rev. ed.,* The MIT 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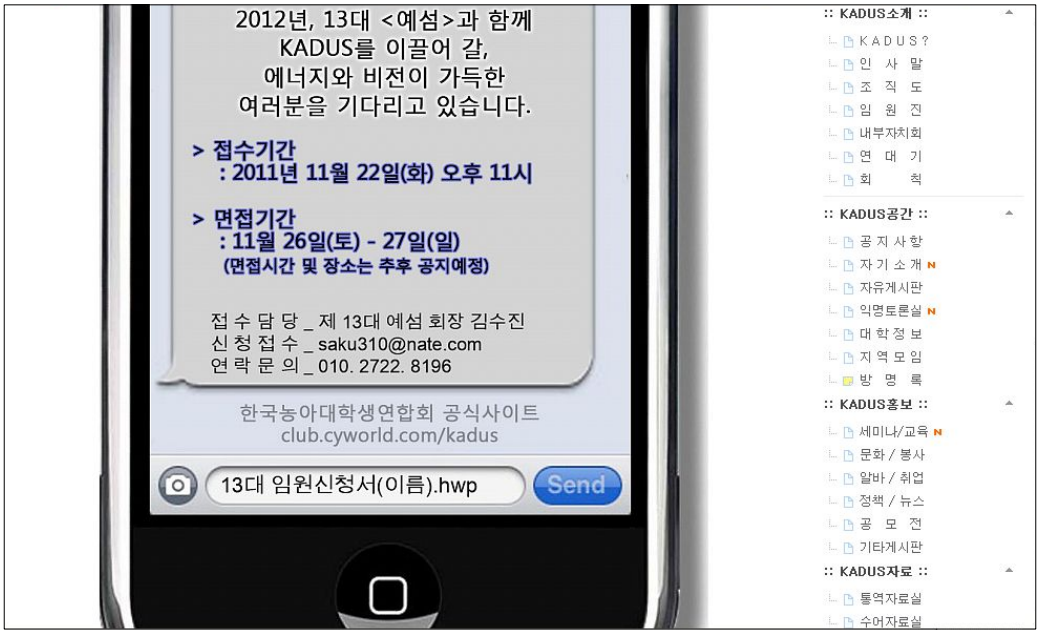
Rothaermel, Frank T., & Stephen Sugiyama (2001). Virtual internet communities and commercial success: Individual and community-level theory grounded in the atypical case of timezone.com. *Journal of Management*, *27*(3), 297-312.

Stewart, D. A., & Kluwin, T. N. (2001). *Teaching deaf and hard of hearing students: Content, stategies, and curriculm.* Allyn and Bac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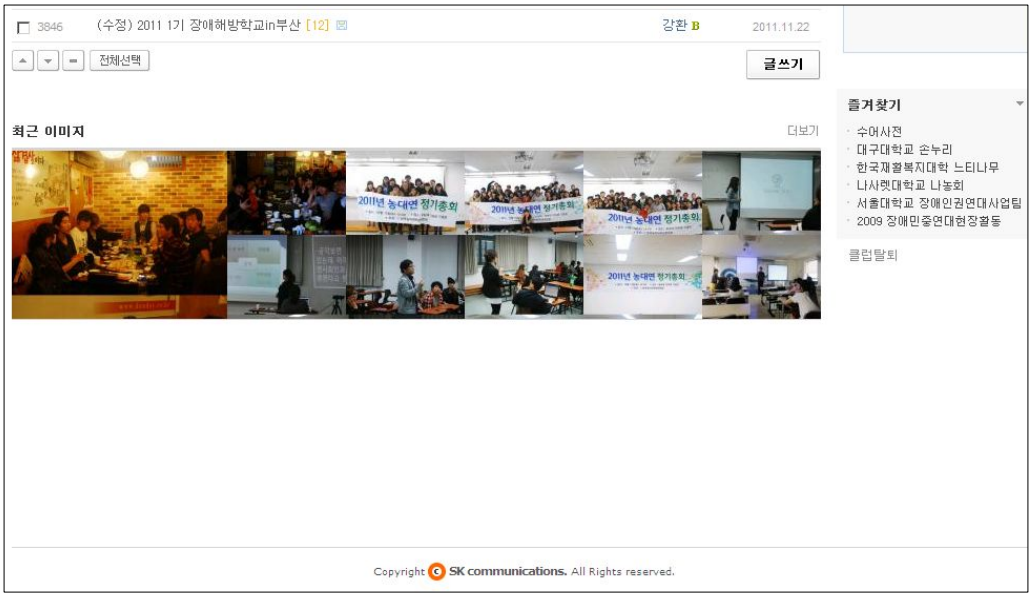
Stolerman, E., Agern, P., & Croon, A. (1998). V*irtual communities-why and how are they studied.* http://www.informatik.umu.se/nlrg/whyhow.pdf. 2011년 8월 2일 검색.

<부록>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 커뮤니티 화면】



공개회의록
:: KADUS추억 ::
KADUS영상
2011年
2008年~2010年
:: 역대임원진 ::
역대임원게시판
임원역대자료실
:: 기타자료실 ::
:: KADUS 후원계좌 ::
국민 055202-04-116727
강수인(농대연)
지난 커버스토리
최근 새글 | 읽지않은 새글
더보기
공지 [공 고] 2012년 13대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 임원 모집 [6] 김수진 2011.11.02
공지 저는 왜 등업이 안되죠? !!! [14] 김영재 2011.05.19
3858 선배님들은 대학졸업 후에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3] 익 명 2011.11.28
3857 2012년도 QoLT장애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 참가학생 선발공고 [2] 이재호 2011.11.28
3856 #1. 장애해방학교 첫날_잘마쳤습니다. [4] 강환 2011.11.28
3854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 [23] 익 명 2011.11.26
3853 한미FTA 만화 [6] 조우진 2011.11.22
3852 [스크랩] MBC ' 함께사는세상 ' [2] 김유진 2011.11.22
3846 (수정) 2011 1기 장애해방학교in부산 [12] 강환 2011.11.22
전체선택
글쓰기
클럽 on
접속 1
박은경 보이기
정원영
최근 이미지
더보기
즐겨찾기
수어사전
대구대학교 손누리
한국재활복지대학 느티나무


3846 (수정) 2011 1기 장애해방학교in부산 [12] 강환 2011.11.22
전체선택
글쓰기
최근 이미지
더보기
즐겨찾기
수어사전
대구대학교 손누리
한국재활복지대학 느티나무
나사렛대학교 나농회
서울대학교 장애인권연대사업팀
2009 장애민중연대현장활동
클럽탈퇴
Copyright SK communications. All Rights reserved.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특수교육	학 번	20098006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 박은경 한문 : 朴恩京 영문 : eun-kyoung park				
주 소	광주시 서구 상무2동 대주아파트 101동 1810호				
연락처	E-MAIL : eun3187@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온라인 농인 커뮤니티 사례 연구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를 중심으로- 영어 : A Case Study of Online Deaf Community -Focused on 'Korean Association of Deaf University Students'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반대( )

2011 년 11 월 30 일

저작자 : 박 은 경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